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2022년 LiFE 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을 내면서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LiFE 사업)’에 참여해 대학 캠퍼스를 배움의 열정으로 채웠던 성인학습자들의 경험을 수기집으로 엮었습니다.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학위취득과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30개 대학의 성인학습자 중심의 학위 과정 운영을 지원한 LiFE 사업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갈무리하는 시점에 발간하는 이번 수기집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LiFE 1단계 사업은 학령기 학생 위주였던 우리 대학에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학과, 학부, 단과대학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간 전국의 참여 대학 캠퍼스에서 성인학습자들이 보내주신 용기와 도전, 교수진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시작하는 LiFE 2단계 사업은 대학 내 평생교육 운영체제를 고도화하고 지역 사회, 지역 산업, 지역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 수기집에 실린 소중한 이야기가 대학 캠퍼스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자 하는 여러 예비 성인 대학생들의 마음에 설렘을 불러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수많은 삶의 장벽으로 학업을 망설이는 성인학습자 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해보겠다는 용기를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새로운 꿈을 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어디서든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LiFE 사업에 참여하신 모든 학습자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 대 중

1

일반대학교

가톨릭대학교	8	아주대학교	72
경일대학교	10	영산대학교	76
대구한의대학교	14	인하대학교	84
동덕여자대학교	22	전주대학교	92
동명대학교	30	제주대학교	96
동서대학교	36	청운대학교	104
명지대학교	44	한국교통대학교	110
부경대학교	50	한라대학교	116
상지대학교	58	한밭대학교	12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66	호서대학교	124
순천대학교	68		

2

전문대학교

군장대학교	130
동의과학대학교	138
목포과학대학교	146
서정대학교	154
성운대학교	160
인천재능대학교	168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일반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명지대학교

부경대학교
상지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영산대학교
인하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청운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밭대학교
호서대학교

학습; [명사] 1.배워서 익힘.

LiFE 사업 학습수기



초등학교 때 '20살의 나는 무조건 남들처럼 좋은 대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원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은 아니고 환경이 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모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저의 어린 시절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창피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부담감에 현실에서 도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저 성인이 되어 오롯이 내가 내 힘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선택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바로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인이라는 권리만이 필요했기에 고등학교 시절은 그리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고 학업에 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취업 시기가 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당장 날 뺏아줄 회사에 지원해 입사하였고, 그렇게 시작한 직장 생활은 지치면 그만두고, 쉬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구직 활동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직장을 경험했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돈에 휩쓸려 이리저리 휘둘리는 제 모습에 지칠 때쯤 고등학교 친구가 저에게 제안한 것은 대학교 진학이었습니다. 처음 제안 받았을 때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당시 직종은 진학하지 않아도 되는 직종이기도 하고, 또다시 퇴사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꽤 오래 쉬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박혀서 게임만 몇 개월 하기도 하고, 몇 개월은 반대로 집에 아예 안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 토론 과제 활동



키스톤 ; 포도 콜라주 과제 활동

돈이 떨어져서 급하게 시작하게 된 구직 활동에 지친 저는 그동안 했던 일들 중 제일 오래 할만한 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직 사무 일을 하게 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 온다면 나 대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무직 특성상 다른 누군가도 충분히 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늘 먼저 제가 나오던 직장에서 반대로 이제는 내쫓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친구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무작정 친구에게 연락해서 이제는 진학하고 싶으니 나 좀 도와 달라고 하며 본인의 일처럼 이것저것 함께 알아봐 주고, 난생처음으로 수시 접수 후 나온 결과가 쓸쓸하게

도 예비 번호와 탈락뿐이었지만 무척 축하해 준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수시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제서야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인생을 찾아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란 게, 꿈이란 게 딱히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심 부러웠습니다. 불행이 늘 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늘 불행을 끌어안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교재들을 사고, 펜을 쥐고, 과제 하며 글을 쓰는데 아직 초반이라서 그런 걸까요.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재밌었나 싶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것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나이 어린 친구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요. 어릴 때는 평생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 싫다 못해 두렵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제야 찾은 제 꿈은 무엇이든지 공부하는 것이고,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멘토&멘티데이 활동

새로운 도전과 희망

LiFE 사업 학습수기



지금까지 대학교 문턱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느 날 갑자기 “같이 4년제 대학교 졸업장 하나 따자”라는 친구의 제안과 평소 평생교육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도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그 호기심이 새로운 도전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삶에 막대한 영향력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2의 Life를 시작하는 거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남들이 보는 나의 삶은 부족함은 없었다.

하지만 항상 나의 마음 한편에는 무언가 부족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허전한 부분을 대학의 평생교육을 통해 새로운 미래와 더 나은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사고의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다. 지금 하는 일과 함께 더욱더 체계화된 전문 지식을 학습하며, +1을 할 수 있으며, 다소 거리가 멀거나 늦은 나이라 생각하기도 했지만, 도전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몸으로 행동해서 더욱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현장의 밑바닥부터 일을 시작하였으며, 차후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까지 항상 오게 되었는데, 사실 그 이유를 잘 몰랐지만 바로 곧 그 해답을 대학교 생활할 때 찾을 수 있었다.

경일대 미래융합대학 ICT경영학부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찾아가며, 그 가치를 창출하는 것과 미래의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면 현장 일은 힘들어질

것이고, 나의 사고와 성장도 멈출 것이다. 예전에 직장 선배가 지나가면서 “너는 나이 먹고도 이런 일들을 할 거야?”라고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이 한마디가 나의 한계에 도전하고 변화하는데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과 병행하면서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즉 현업의 일은 힘들고 시간도 내기 어렵고, 여러 사회적 일로 늦은 대학교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새로운 환경변화의 인생 가치를 증명하고, 또 다른 세계에 도전하는 게 매일 매일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큰 변화가 안정된 나의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은 기회와 확신으로 바뀌어 가면서 새롭게 하나하나 설계하는데 꿈과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취득까지 하게 되었다. 나의 생활에서 필요 없을 것도 같지만, 평생 교육사 자격 취득을 위해 그동안 관련된 이론들을 학습하고 실습한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또한 약간의 내성적인 성격을 완전히 변화하도록 바꿔놓았다.

4년, 처음에는 길게만 느껴지고, 과연 졸업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던 부분이 어느덧 경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기술경영 석사 과정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도 깜짝 놀란다. 또한, 학부 때와 다르게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하시는 분들과 수업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포스가 다르다. 대화의 질과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위치가 한층 상승하였으며, 뭔가를 자신 스스로에게 더욱 성장과 발전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그 자부심이 결국은 나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무한한 발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다, 졸업한 선배가 미래융합대학 신입생들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강의 주제는 “나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제로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학교생활이지만, 성인학습자인 관계로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을 하게 되었다. 물론 자료는 직접 다 만들어 준비하여야 하는 부담도 많았다. 그러나 대학 4년 동안 교수님들 강의 방법과 기법 등을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었다.

직장에서 직원들 대상으로는 안전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아무렇지 않게 해왔지만, 일반인 그것도 기업체 대표 혹은 중역들과 현저히 나이가 많은 인생 선배들 앞에서 특강을 하는 것은 많은 부담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약간 긴장 속에 첫 말문이 트고, 성인학습자 후배들이 한 분도 졸지 않고

경청하며, 질문에 대답도 해주시면서, 준비한 자료를 자신의 스마트 폰에 저장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모습에 더욱더 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감동은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면에 나의 새로운 모습과 그동안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 수 있는 듯했다. 특강 후 딱 봐도 연세가 많이 보이시는 분도 직접 내려오셔서 악수를 청하며, “내 생애 이런 강의는 처음 들었다며,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다”라는 말씀에 또 한 번 감격과 기쁨이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생동감을 맞볼 수 있었다. 또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 너무도 좋은 자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외에 명함을 달라는 분과 자신의 기업체에 한 번 방문하여 직원들 대상으로 명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

이런 나의 모습에 19학번 대학 동기들은 “우리 성인학습자 중에 박사 교수님 나왔다”라며 놀리기도 한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나 스스로는 아주 뿌듯하며 또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흥미진진한 대학 생활이 아닐 수 없다. 지금에서야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더 대학 학부 때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중간에 세계적인 이슈인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을 졸업한 후에도 학교와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지속해서 융합 성장하며 동창회를 통해 발전해 나가려고 한다.





꿈을 향해 사막의 낙타처럼 걸어가자

LiFE 사업 학습수기



“선생님,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입시상담을 받을 때 선뜻 진학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학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갖고 있었다. 이력서를 쓸 때도, 현재의 나를 소개하는 시간에도 대학 출신에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내가 작아졌다. 기회가 되면 다시 진학하겠다는 생각으로 있던 중에 공부를 할 기회가 찾아왔다. 막상 기회가 주어지자 막연한 불안감에 입학할 고민했으나 일단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발표 수업

어느새 시간이 흘러 2학년이 되었다. 지금은 보람을 느끼며 너무나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그때 시작하지 않았다면 대학 진학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이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학장님과 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큰 꿈을 가지고 대학 생활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학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큰 꿈을 가지게 만들고,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LiFE 사업의 매력이었다.

내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아빠 학교 가?”라고 하며 귀여운 초등학생 아들은 내게 묻곤 한다. 어른스럽게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라는 조언도 함께해 준다. 이제는 토요일마다 학교에 가는 아빠가 제법 익숙해진 모양이다. 토요일은 늦잠 자고,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이 나의 꿈을 향해 다가서는 멋진 시간으로 변했다.



평생교육융합학부 22학번 M.T

업무 전 시시콜콜한 인터넷 기사를 보던 시간에 L.M.S로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쌓게 되었고, 방학 중 특강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교양과목으로 배운 일본어는 매일, 조금씩이라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었다. 일본으로 떠났던 가족여행에서 유창하진 않았지만, 공부 덕분에 불편 없는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발표 수업을 통해 청중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스피치 특강을 통해 발표 스킬을 한껏 올릴 수 있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들이 토대가 되어 올해는 다수의 청년 사업 선정의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평생교육융합학부 친구들 덕분에 리더십을 배웠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생교육융합학부 학학회 부회장과 1학년 과 대표를 역임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학부를 위해 이벤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함께 만들었던 MT, 체육대회, 박람회 등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리더는 술선수범해야 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어



칸트 스쿨

려움을 헤쳐갈 수 있었다. 친구가 되는데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공부를 하는 데에도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년의 나이가 지나서도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나도 언젠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겠지만 배움은 멈추지 말자는 다짐을 해본다. 우리 학부는 이삼십 대의 강한 열정을 가진 친구, 사오십 대의 멋진 중년의 친구, 육칠십 대의 기품을 갖춘 친구 등 다양한 연령의 친구가 함께 공부를



평생교육융합학부 서바이벌게임



대구가톨릭대학교 축제

하고 있다. 나이는 각기 다르지만, 함께 배우고, 공부하며 뜻을 같이한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 늘 마음 든든하다.

요즘 들어 큰 꿈이 생겼다. 현재 운영하는 회사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다. 최근 많이 느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처음에 공부와 학업을 함께 하는 것이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시작해 보지도 않고 선불리 판단한 걱정이었다. 자투리 시간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몸소 알아간다.

올해 2학년이 되면서 너무나 배우고 싶었던 경영학, 인적자원개발론 등의 수업을 들으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스스로가 대단하다. 꿈을 향해 사막의 낙타처럼 걸어가는 길이 혼자가 아니라 옆에는 늘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 더 행복하다. 대학 진학에 대한 갈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평생교육을 먼저 시작해 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일단 시작부터 해 보자.



리더십 스피치 양성과정





주도적인 삶을 위한 꿈 전도사의 길

LiFE 사업 학습수기



학습동기유발 칸트스쿨

살며, 늘 배움에 목말라했었다.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싶었으나 직장 일과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우선권을 두어야 하는 형편이어서 선뜻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을 통해 학비 부담 없이 대학을 다니며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삶에

새로운 꿈이 생겼다. 국비 지원에 의한 성인학습은 희망이자 설렘이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여서 엄마의 역할을 하며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두려움과 삶의 무게감으로 많이 고민해야 했지만, 정성을 다해 상담해 주신 교수님과 선배이자 직장 상사님의 강력한 지지로 입학 결심할 수 있었다.

학습 동기 유발 프로그램이었던 칸트스쿨은 잠든 내 의식을 깨웠다. “용기를 내어 알고자 하라.”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다. 내가 내 안에 갇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음을 자성했다. 디지털 및 정보 활용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문서작성 방법과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며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에 임했다. 난타 동아리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몸치 탈출과 건강도 차츰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배움은 생활의 활력이었다. 허리가 아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의 배려로 불편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단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교육 덕분이었다. 학교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20대의 젊음으로 돌아가 캠퍼스의 낭만을 맘껏 즐기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의 부모가 되면서 노는 법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기에 그동안 고생하고 살아온 내가 보상을 받는 것 같아 학교로 향할 때면 늘 발보다 마음이 앞서갔다.



디지털 및 정보활용 능력향상 프로그램

대학 진학을 반대하던 남편도 조금씩 달라져 내 편이 되었다. 배움에 행복해하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1년 후에 학과의 후배로 입학했다. 부부 대학생이 되어 함께 학교에 가는 날은 신혼 기분을 내며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다. 공부는 우리 부부의 새로운 활력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새싹처럼 돌아났다. 남편은 남편대로 숨겨진 끼를 발산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 갔다. 남편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보람을 느꼈다. 노인대학에 다닌다고 놀리던 둘째 딸도 엄마, 아빠가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며 더 열심히 자신의 앞길을 향해 노력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위로받는 마음이 너무 행복했고 공부는 삶의 활력이었다.



가족의 평생교육 실천

학교에서 배운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싶었다. 내 가족을 대상으로 먼저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님의 잃어버린 꿈을 찾아드리기로 했다. 시어머님은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연로하신데도 그림은 전공자들 못지않았고 사실적인 기법이 실물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지난해 79세의 생신 때에는 직접 그리신 그림을 모아 선물로 책을 만들어 드렸더니 소녀처럼 좋아하셨다. 그림을 보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 큰 보람을 느꼈다. 대학에 다닌 지난 4년의 시간은 내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뒤처지지 않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주민자율방범 봉사활동

2023년 2월 20일 꿈에도 그리던 대구한의대학교를 졸업했다.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취득하고 청소년 지도사 2급에도 합격 후 연수를 마쳤다. 현재 근무를 하는 직장에서도 특성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인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꿈 찾기와 행동하기를 지도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열정을 쏟고 싶다.

현재 난타 재능기부를 하고 있으며, 5km 마라톤 도전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또한 남편과 함께 주민자율방범대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의 삶은 모든 사람이 꿈을 찾아 주도적인 생을 살아가도록 평생교육의 꿈 전도사로 살아가려 한다.



북난타 동아리 활동



재능기부 봉사활동



JUST DO IT!

LiFE 사업 학습수기



수시 입시 도우미 활동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랐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능숙하게 해내지 못하는 과정을 창피하다고 느껴 배운다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떤 것을 시작할 때, 행동하기 전부터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성향이 배움에 대한 의지를 더 약하게 만들었

습니다. 하지만 취업하고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이대로 나는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꽃피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주변에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일·학습 병행을 하는 친구들은 하나같이 대학 진학을 추천했으나 배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저는, 진학에 대해서도 큰 불안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있던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대학 진학을 준비 후 좋은 결과를 얻어 동덕여자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2021년도 신입생으로 입학 후, 새내기라는 설렘보다는 동기들에 비하여 늦게 대학 진학을 하여 친해지기 힘들 것 같다는 걱정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만 앞섰습니다.



홍보단 발대식 활동

하지만, LiFE 사업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제 생각은 180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물론이고 멘토인 선배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실제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일·학습 병행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든든한 친구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전부 걱정만 독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대학 진학이므로 후회 없는 4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걱정에서 사로잡히지 않고 먼저 행동을 하여 직접 경험을 하고 판단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멘토링 활동 이후, 저처럼 걱정과 불안감이 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iFE 사업 미래인재융합대학 홍보단 모집이 시작되자 제가 받은 도움을 베풀 기회라 생각하여 홍보단 지원 후 2021년 8월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단에 입단하고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여 직대딩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학교를 홍보하고 동영상 편집 기술을 배워 유튜브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입생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입시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홍보단 활동은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고민하고 관련된 기술을 배우는 이런 노력이 쌓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보람찼습니다. 수시 입시 도우미를 했을 때 한 입시생분이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이 도움 되었다고 하여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학교 홍보 동영상 촬영

과거 새로운 것을 배우기 꺼리던 저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여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학생 학습수기 활동

배움의 과정에서 서툴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홍보단 선배들의 가르침과 동기들의 힘을 합쳐서 헤쳐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전보다 성장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홍보단 활동에 보람을 느껴 2022년 8월부터 홍보단 단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단 활동으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되자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의 학습 수기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고 후배들에게 저의 학습법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양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재직자 전형 콘서트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미래인재융합대학을 설명하고 입시생들에게 Q&A를 진행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입시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되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동덕여자대학교에 대해 알 기회가 생겼고 재직자 전형 콘서트에서 Q&A를 했던 입시생분이 동덕여자대학교를 희망하여 실제로 수시 지원을 하셨을 때는 제 활동의 결실을 본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2023년은 학생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학생회에 대해 궁금증은 있었지만 '학생회는 힘들다.', '학점을 챙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들어 학생회가 궁금해도 행동으로 옮기긴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회 활동을 한 동기의 후기를 듣고 저의 나쁜 버릇이었던 행동하기 전에 걱정과 불안감이 앞서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일단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미래인재융합대학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학생회 이력이 없어도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식 단과대가 존재하지 않아, 처음으로 단과대학 학생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것이었는데 선례가 없다 보니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들로 새롭게 배우는 것이 더



학생회 활동



선취업 후진학 콘서트 활동

많아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배우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갈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단과대학 안에서만 활동했다면 총학생회와 활동하는 것이 생기며 대학 생활을 더욱 폭넓게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은 학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에서도 계속 근무하다 보니 경력이 정제된 마음이 들었고,

학교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직장 생활을 소홀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고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고 학생회와 홍보단 활동을 하는 등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고 느끼지만, 바쁜 하루 속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저와 같이 어떤 것을 활동하기 전에 걱정과 불안이 앞섰으면 학업만 수행하기도 벅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덕여자대학교에 입학하여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에 배움의 즐거움을 깨닫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경험하여 다양한 활동을 한 덕분에 다채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이제 제가 받은 도움과 교훈을 신입생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힘을 쓸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도 다채롭게 보내기 위해 열심히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4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즐길 것입니다.

멘토링, 알록달록 경험

LiFE 사업 학습수기



코로나 학번, 내가 입학 당시 제일 핫했던 단어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활동이 멈췄고 반복되던 일상생활이 바뀌었는데, 그중 가장 낯설었던 건 교육 환경이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와 4년 후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거의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수업, 실습, 학교 행사 등 모든 것이 비대면이 되었고, 교수님과 동기들의 얼굴조차 모니터 화면으로 만나야 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입학했지만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만들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첫 번째, 멘토링

입학과 동시에 가장 먼저 했던 활동은 LiFE 사업단에서 진행했던 “신입생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학교에 벚꽃이 만개했던 어느 날, 3학년 선배 1명과 1학년 동기 2명이 함께 활동했는데, 나의 롤 모델이 되어버린 멋진 선배와 옆에서 응원해 주는 동기들과 함께 나의 첫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다. 대학 생활이 낯선 신입생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학교 팀방을 통해 강의실도 둘러보고, 미래인재융합대학 전용 라운지에서 영상 속에서만 보던 교수님과 상담을 했다. 그저 명확한 목적 없이 학업을 위해, 학위를 위해 대학교에 입학한 나에게 4년이라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경험과 지식 등 많은 것을 얻어 갔으면 했던 교수님의 바람과 선배님의 명확한 목표 의식이 나의



첫번째 멘토링 활동



첫번째 멘토링 활동

동기부여가 되었다. 1학년 재학 동안 미래 방향을 찾아가는 것에 노력하면서 학업 목표와 졸업 후 목표를 세웠다. 나는 경영지도사가 될 것이다.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직원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동기부여를 받은 건 나뿐만이 아닌 함께 하던 학우분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학교생활을 계획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졸업 후 계획을 구체화하며, 함께 진행 과정과 달성을 공유했다. 입학 후 학교 적응이 힘들었던 신입생 시절에 멋있는 선배와, 든든한 동기들, 응원해 주시는 교수님을 가슴에 품고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두 번째, 멘토링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학업과 학교생활을 비대면으로 해야 했던 당시에 참여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교 정보 교류 및 친목 활동으로 선, 후배 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대학 적응하는 데에 실제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활동이다. 그래서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했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학년 학기 초, 멘토로 지원하여 두 번째 LiFE 사업 신입생 대학 생활 적응 멘토링 활동을 했다.

첫 멘토링 활동으로 받았던 긍정적인 기운과 넘치는 의욕을 가지고 2학년 멘토가 되어 참여했지만, 나의 부족했던 모습에 실망과 절망감을 느꼈다. 멘티님들도 후회 없는 기억에 남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나의 입학 동기와 졸업 후 목표를 전달해 드리고 학교 경험을 공유했지만, 코로나 학번은 몰랐던 행사들과 코로나19 생활 수칙 완화로 인해 수업방식과 활동들이 점차 변화되면서 나 또한 새롭게 배워가는 과정이었다. 그 때문에 이끌어 주기보단 함께 알아가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다. 바뀐 학교 방침과 운영방식에는 구멍이 많았고, 대처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학교에 문의하면 매번 답변이 달라졌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두번째 멘토링 활동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멘티들은 진취적이었으며 적극적으로 나서서 궁금증을 해소했고, 그것들 공유하면서 유대감 형성이 되었던 것 같다. 같은 활동이었지만 다른 의미를 가졌던 시간이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기운을 나눠주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활동 소감을 보고 나의 노력과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에 뿌듯했다. 멘티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나는 오히려 도움을 받음으로써 두 번째 멘토링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 번째, 멘토링



세번째 멘토링 활동

첫 멘토로서 활동했던 두 번째 멘토링 활동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부족함을 많이 느껴 이번 세 번째 멘토링을 시작하기에 앞서 멘토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는지 고민했다.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모두 전달해 드리고 오자는 마음으로 세 번째 LiFE 사업 신입생 대학적응 멘토링 활동을 시작했다. 학교와 학생들 모두 대면으로 전환되어 생기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마무리되었고 학교생활에 점점 적응하던 시기였기에 다행하게도 멘티에게 여러 가지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학교의 수업 방식과 학업 전략, LiFE 사업단에서 지원해 주는 활동의 참여 후기 등 경험담을 풀어가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과,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을 공유했다. 학생회와 LiFE 사업단 홍보단을 하면서 얻었던 정보와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이 멘토링 활동에서 유용하게 쓰였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항상 뒤따라주던 멘티와 한 발짝 더 성장한 나의 모습에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LiFE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해 봤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멘토링 활동이었다. 홍보단 활동, 비교과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사업단에서 해주는 모든 지원금에는 장점만이 가득해서 배움의 활동이었다면, 멘토링은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극복해 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이 낯선 신입생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일·학습 병행을 하는 성인 학습자는 일반 대학생과는 다르게 동아리 활동,

대외활동 등 대학 생활에 쉽게 참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LiFE 사업단에서 진행되는 활동 덕분에 누구보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가는 점에서 시간적 문제로 교류가 부족한 성인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활동임을 자부할 수 있다. 남은 대학 생활 하는 동안 LiEF 사업을 통해 미래의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을 쌓아 갈 계획이다.



20년 쌓은 직업역량 입증 기회! 장관상은 덤!

LiFE 사업 학습수기



1. 뷰티산업학과 입학동기

- 대학진학 꿈은 가지고 있었으나 집안사정으로 미용사의 길 선택
- 직업의 자부심 있으나 이루지 못한 학위취득에 대한 잠재된 욕구 계속 있었음
- 지인의 소개로 학과장님에게 입시 상담 받음. **학령기 학생들과 차별화 된 커리큘럼과 K뷰티산업의 미래를 반영한 학과 소개서에서 발전가능성 보고 입학함**



멘토멘티 프로그램 참여 사진

2. 교과과정과 함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전공 성취도 향상

- 1학년: 동기유발학기, 창업캠프참여, 기초학습지원(대학리포트작성법), 기초학습지원(맞춤형프레젠테이션준비-파워포인트활용법), 더블멘토링,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이용사 자격증과정) 참여
- 2학년: RPL2유형 인정, 동기유발학기, 대학생활적응 위한 심리검사, 멘토멘티프로그램 참여

3. 학교생활을 통한 주요성과

- 전공과목 통한 역량 강화와 함께 전공 성취도 UP
저학년부터 현장기반형 교육과정과 실기수업으로
기술경력 활용기회 많았으며, RPL2유형(3학점)인정 받음
- 2022년 한국미용페스티벌 대회에 도전 3관왕 수상
 - 1)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22.12.06.)
 - 2) 크리에이티브 공모전금상
 - 3) 헤어바이나이트 금상
- 국가자격증 확보: 미용 & 이용 전문성 UP SKILL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중 국가자격증 이용사 시험대비
과정을 통해 '이용사 자격증' 취득
- 교내외 성인학습자 우수성 알림-언론보도 및 SNS 홍보
- 학과내 성공 모범사례 통한 학습 동기부여
뷰티산업학과 재학생들에게 모범사례, 전공분야를 통한 인생목표 설정 가능성입증



수상작품

4. 향후 목표 및 계획

생각하지도 못하게 장관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20년경력을 인정해주는 학교와 응원하는 학우들 덕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3학년이니 뷰티산업에 관한 기술 이외에도 산업에 관한 지식을 쌓고 후배들에게도 노하우를 전수하고 대학원까지도 진학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학교 카드뉴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대회 3관왕 수상 언론 보도

꿈을 향하고 꿈을 이루다

LiFE 사업 학습수기



과제발표

안녕하세요!

저는 동명대학교 미래 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56세 이선영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이 새롭게 생성하고 활기찬 봄을 4번째 맞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늘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 중 2남 2녀의 장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사회에 진출하여 좀 더 가족들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고 장녀로서 동생들을 보살피고 돌보며 직장 생활하며 대학 진학은 그저 꿈에서나 꿈꾸는 나의 소망일 뿐 그렇게 생활했지요. 저의 대학 입학이 늘 꿈이었던 부모님의 바람도 저에게는 그저 한낱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을 좋아했던 저는 사범대학 수학과를 나와 수학 선생님을 꿈꾸며 나의 삶의 목표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의 굴레 바뀌는 흘러갔고 그러한 저에게도 꿈을 이룰 기회가 50이 넘는 나이에 찾아 왔습니다. 동명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복지경영학과에 합격해서 입학하게 되었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입학 소식을 제일 기뻐하시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과 함께 꿈을 이룬 것에 벅찬 감동을 하였습니다. 늘 평생 한을 가지셨던 아버지의 눈물은 지금도 잊히지 않네요. 그런 아버지께서는 대학 1학년 때 루게릭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며 학교 생활 중 병간호하며 아버지의 꿈인 저의 졸업을 꼭 보시고 부모님께 함께 하자고... 그렇게 갈망 하던 저의 작은 소망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의 작별을 가슴 속에 묻어 버리고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수없이 고뇌하는 저를 위해 많은 격려를 해주신 저희 과 지도교수 최장원 교수님의 도움이 저를 다시금 일으켜 주셨습니다. 평생 한이 되셨던 아버지의 꿈이 헛되게 할 수 없다는 생각과 지금도 저를 지켜보실 아버지의 생각에 더욱더 저를 채찍질하며 굳게 마음을 먹고 학업에 매진하여 지내 온 시간이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것을 수없이 깨닫고 보람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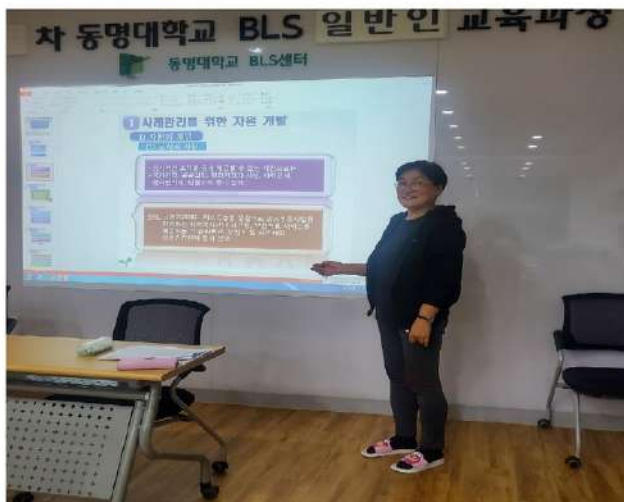
모든 만학도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저 역시 1인 4역으로 학교생활과 보존화 작가로서 그리고 남편 사업에 내조하며 큰아들의 조그마한 식당 일을 병행하며 배움의 기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하는 복지경영학과는 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복지 정책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저에게는 더없이 많은 도움을 주는 학문으로써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학회장으로써 리더십을 십분 발휘하여 폭넓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며 도움 주고 저 역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대학 교육을 받으며 만학도로서 인생 2모작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창업동아리 활동

4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은 저의 인생에서 후회가 되지 않을 올바른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또 다른 저에게 저의 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두 번째의 저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한 결실을 모아 복지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어 보람되고 뜻깊은 일을 통해 어렵고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에 밑알이 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정말로 숭고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삶에 LiFE 사업의 학습자로서 꿈도 가질 수 있었고 제가 변모하고 많은 성과를 4년 동안 느껴 왔고 지금도 성장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생각뿐이던 복지경영학과에서 나의 사고는 보다 전문가 다운 모습으로 배움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의 한 이셨던 저 큰딸의 꿈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실 아버지의 꿈과 저의 꿈을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발표

도전하는 용기와 정신은 안 해서 못 하는 것과 못해서 안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지금도 안 해서 못 하는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며 배웠던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꼭 세상에 밝은 빛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어진 기회를 값지게 활용해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의 보잘것없는 글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꿈과 희망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글재주가 없는 저의 글이 많은 만학도 여러분에게 용기와 도움이 되셨다면 저 역시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는지요? 끝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소망해봅니다.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하며!

LiFE 사업 학습수기



2019년 2월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고 1년 가까이 항암 8회, 수술, 방사선 치료를 하며 투병을 하던 나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 걷기를 좋아하던 언니가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 대학에서 LiFE 사업으로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기회가 있는데 운동 삼아 시니어운동처방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방사선을 막 마친 상태라 건강이 최악이었던 상태라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로 한 번 해보기로 하고 입학원서를 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입학 안 했더라면 너무 후회했을 거 같아요^^

2020년 입학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사태로 학교는 가보지도 못하고 줌이나 원격으로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힘들게 보내었습니다.



딤다라인 동아리 회장으로 강사 활동

코로나는 계속되었고 점점 줌 수업이나 원격수업에 익숙해져 가며 대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고 2학년 때는 수업에서 걷기 지도자 2급, 스포츠트레이너 마사지 1급, 걷기지도자 1급 등을 취득하며 학교에서의 배움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배운 대로 운동도 하며 걷기를 꾸준히 하니 건강 또한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많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나의 역량도 조금씩 향상해나가기 위해 다양하게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어떤 때는 일도 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교수님들의 관심과 학우들과 함께 하하하하 웃으며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이 참 감사했습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참여

1, 2학년 때는 힘들던 공부가 3학년이 되니 재미있어졌습니다. 역시 학습을 통하여 필라테스, 요가, 테이핑 등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조금씩 코로나도 풀려 대면하여 수업하기 시작했고 학우들과 많은 행사를 함께 하며 진정한 대학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이란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꽃도 심어보고 학우들과 더욱 친밀해지며 학교 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Untact 극복을 위한 문화워크숍은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우리에게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주어 배운 스트레칭을 무대 위에서 신나게 뽐내기도 했었습니다. 언니들의 열정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경기에 다 출전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준 동서대학교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2022년 부산 갈매길 국제전기대회에서는 올바른 경기 강사를 하며 배운 것을 토대로 재능 기부를 하게 되었고 축제에서 많은 학우와 즐겁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장기자랑에서는 맘껏 우리 끼를 발산하고 동영상으로 볼 때마다 그 시간을 떠올리며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처음에는 난 할 수 없어! 못 해! 자신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도 해 볼게! 내가 할게! 등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그만큼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Untact 극복을 위한 문화워크숍 스트레칭 참여



2023.04.01. 오륙도투나잇 56km완보

동서대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아프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였습니다. 나가서 발표하라고 하면 떨려서 아무것도 못 하던 저였습니다. 입학 당시는 정말 꿈도 없었고 그저 내 몸 하나 건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입학 하였는데 막상 입학을 하니 하나씩 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서 나는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걸으며 좋은 습관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3학년 때에는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며 노인스포츠 지도사에도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4학년들끼리 졸업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2023년 4월 1일은 오륙도투나잇 걷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7km, 22km, 56km 중에서 56km를 무박으로 완보하며 지금까지 배우며 훈련했던 것들이 4학년이 되니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을 후배들에게 나눌하는 선배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미래커리어대학 '나도교수제' 특강에서 노인스포츠지도사 구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답다동아리 회장으로 후배들에게 배운 것들을 재능기부하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치이던 제가 댄스와 함께하는 운동 답다라인을 배우면서 내가 몸치는 아니구나 연습하면 되는구나를 느끼며 즐겁고 재미있게 배우며 바로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긴 것 같던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꿈이 없던 저에게 이제는 꿈이 생겼습니다.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제가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을 만나서 하나씩 배우며 성장하며 그 기쁨을 맛보았기에 저의 삶에서도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만난 걷기를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하였습니다. 걷기를 통해 건강해지는 경험을 얻었기에 걷기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 걷기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답다강의를 통해서 더 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는 그런 멋진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학교 수업을 통하여 강사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보조 강사로 나가 현장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노력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부산 갯길 국제 걷기대회 걷기강사 참여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 시니어운동처방학과를 만나서 저는 새 삶을 얻었습니다.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분이 저와 같은 도움을 받아 성장하며 LiFE 사업도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도교수제 노인스포츠지도사구술 강사

도전하라!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LiFE 사업 학습수기



2023 국제해양콘텐츠 공모전 중

“도전하라!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위의 문장을 배움의 과정을 주저하고 있을 모든 예비 성인 학습자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생활을 24년 정도 하는 동안 유튜브(SNS)나 연기에 대한 막연한 배움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물질과 정보 그리고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항상 포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위 친구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LiFE)의 일환으로 저 같은 성인학습자가 평생학습을 통해 능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동서대학교 미래커리어대학에서 실용 콘텐츠창작학과를 개설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주저 없이 바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해서 2022학번으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하는 공부라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지만 학교의 체계적인 커리큘럼 과정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님들의 성실한 가르침은 지식에 목말라하는 저의 갈증을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금이라 불리는
금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많은 시간을 친구나 가족과
보내는 기쁨을 포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가족과의 시간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변한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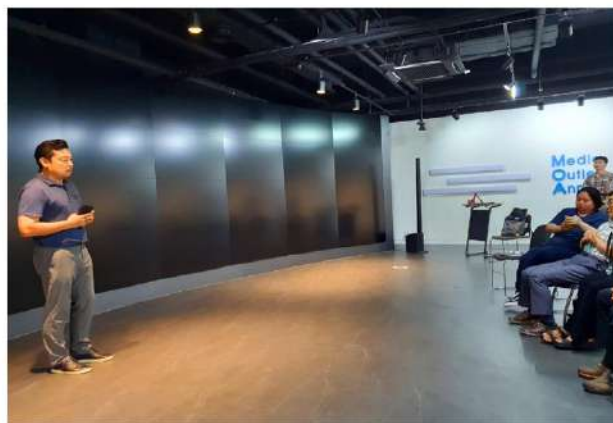
2022년 7월, 드디어 교수님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실용콘텐츠창작학과와 모든 성인학습자들의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천국제스마트폰 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각자의 정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예천온에어부”와
“시니어부”에서 각각 장려상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예천영화제 온에어부 포스터

그리고 같은 해 7월, 제가 부산시에서 배웠던 “피란수도 부산”에 관한 역사 내용과 동서대학교
에서 배운 여러 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과 동기와 함께 “피란수도 부산 유산 응원해”라는 영상 콘테스트
에서 “순덕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023 해양콘텐츠 국제 공모전”에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숏폼 영상을
제 이름으로 제작 출품하여 우수상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연기수업 중



학과장님과 학생들의 미팅



학술워크숍 영상산업센터 방문

이렇게 저와 저의 학우들의 도전 정신은 불가능할 것 같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내었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저의 여러 부족한 환경만 탓하고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맘속에 항상 가져왔던 영상 제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도전하지 않고 나이만을 탓하고 있었더라면 이런 여러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나이를 탓하고 시간을 탓하며 공부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예비성인학습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은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제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많은

것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꼭 도전하십시오!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성인학습자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교수님들, 행정실 관계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생교육: 인생은 길고, 배움은 끝이 없다

LiFE 사업 학습수기



참여 동기



여름방학 영어회화 교육과정 수료

매체를 통해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담사'라는 직업에 호기심이 생겼다. 명지대학교 심리치료학과에 입학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에 살고 있어 학교까지 3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통학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주 2회 수업으로 걱정을 덜 수 있었고 현장 중심의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다. 또한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50%를 지원해 주는 장학제도가 있어서 가계 부담이 줄었다.

대학 생활

1) 자기 발견, 책임 그리고 자신감

심리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타인을 알고자 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학교 수업을 통해 가장 얻어간 것은 몰랐던 나 자신을 조금씩 이해하고 발견한



LMK 학습법 공모전 제출 영상



LMK 학습법 특강: 최우수상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적이 종종 있었고, 항상 나보다 남을 우선시하여 겪게 되는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심리검사와 교수님들과 상담하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과 욕구를 지니고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문구는

수업 중에 과거의 나를 성찰하게 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황을 탓하며 못했다고 변명해왔지만,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긴 이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남 탓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한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심리학을 배우면서 대인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가족, 친구,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얘기만 할 줄 알았던 로봇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경청’하는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욕구를 알아차려 주고 정답이 아닌 감정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2) 삶의 목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서 주관하는 ‘LMK(Let Me Know!) 학습법 공모전’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탔다. 이를 계기로 ‘나만의 반복 학습법’이라는 주제로 단상에 올라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게 떨렸지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나의 공부법에 대해 알릴 수 있어서 신이 났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뚜렷해졌다.

3) 4번의 전직, 끝없는 배움

코로나로 인해 대학 생활에 흥미를 잃어 1년간 휴학을 했다. 휴학을 하는 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사무실을 개업하였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운영난을 겪었고 복학하여 취업을 준비하였다. 선·후배, 동기들과 ‘심취하다: 심리치료학과 취업하다’라는 취업 동아리를 창단하여 활동하였다.



취업동아리 활동



크로스핏 코치 취업



금융권 취업

동아리 활동과 더불어 여름방학 때는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수료하였으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을 준비한 결과, 원하는 금융권에 취업할 수 있었다. 다만 학교와의 거리 문제로 오래 다니지는 못했고, 현재는 내가 잘하는 분야인 운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크로스핏'운동 코치를 하고 있다.

향후 계획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선정된 솔리언 또래상담 대학생 멘토 활동을 잘 마치고,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미래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관해서 공부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상담심리 전공의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내담자의 심리를 치료하는 성숙한 상담자가 될 것이다.



솔리언또래상담 대학생멘토 선정

바라는 점

먼저 상담자로서의 꿈을 갖게 해준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에 감사함을 전한다. 앞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지역 사회에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LiFE)'을 확장해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보장하고, 많은 국민의 '평생성장'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

LiFE 사업 학습수기



홍보단 활동

제가 단순히 학위를 얻으려는 것 외의 진정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권유로 봉사동아리를 시작하고서 세상을 달리 바라보게 된 계기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장애인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까워졌습니다.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즐기고 웃는 자연스러운 센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아! 우리 사회도 이런 모습이라면 이들이 센터 밖에서도 우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런 사회라면 설령 우리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혹은 내가 장애인 이라면 불행한 삶이 이어지겠구나하는 은연 중의 편견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혹은 실제 주변을 돌아볼 때 선망이 되는 주되고 화려한 존재보다는 소외되고 힘없는 존재에 눈길이 가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사회생활 3년 차에 접어들고부터 자연스레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대학 진학을 고려하였으나, 재직자로서 일을 병행하며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학교에 가기까지 현실적으로 회사의 배려가 필요해 보였고, 특히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교 전공은 경제금융에 한정되어 있어 진학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 진학이라는 주류의 흐름에서 벗어난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사회복지에 대한 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명지대학교 미래융합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전공탐색을 위한 노력

LiFE 사업을 통해 재직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시간과 장학혜택을 제공받으면서 큰 어려움 없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학업 외에도 졸업생/전문가 초청 진로특강, 멘토링, 공모전 등 비교과 활동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께서 마련해 주셨던 의료사회복지사, 졸업생 특강들은 실제 현장을 이해하고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실습, 병원에서의 의료사회복지 봉사, 어린이재단에서의 모금서포터즈 등의 대외활동으로 전공을 탐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래학습진로센터]까스·할 명지 학습법특강 3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124회 · 1년 전

학습법 공모전 수상



코로나 극복 응원 공모전 수상

디딤돌이 되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해 준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과 우리 대학에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에서의 값진 경험

지난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학기가 지속되면서 학교에 직접 갈 일이 적어졌지만,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모전과 멘토링에 참여하며 학우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코로나에 침체되지 않도록 '코로나 극복 응원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저는 비대면으로도 학우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채팅상담과 온라인 전시회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습법 공모전, 전공멘토링 등에 참여하며 대학 생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병행하면서까지 대학에 입학했던 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성과를 내보고자 열의를 쏟았던 것이 지난 4년의 결과물로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복지 분야로 나아가기 위한



Enter(엔터)

LiFE 사업 학습수기



'목적 없는 삶'

뜨거운 햇살이 내리쬘던 19살의 어느 여름날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내 모교는 경영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생들 대부분이 3학년 재학 도중에 취업하였고, 나 역시 조금 빠른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었다. 당시를 떠올려보면 취업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3년간 성적, 자격증, 대외 활동 등 모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었다. 노력의 성과로 취업하였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기쁨도 잠시, 직장 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괴리감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마주하게 되었다. 회사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내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뚜렷한 목적 없이 반복적인 업무를 해야 했다.

12년 동안 그저 매일 같이 쳇바퀴를 돌리는 다람쥐처럼 나에게 있어 목적 없는 삶은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의 나날이었다. 특별한 것 없이 늘 똑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29살의 어느 날 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계기를 설명하자면 조금 부끄럽지만, 소개팅에서 시작이 되었다. 어느 날 소개팅 주선자로 나간 자리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상대방의 첫마디가 “대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였다. 평소 좋은 회사에 근무 중이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왔기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학력이 나오는 순간 나도 모르던 나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대학이라는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변화하는 내 삶을 경험하자는 목적을 가지며 부경대에 입학하게 되었다.

'착각'

사실 대학교에 입학하며 세운 나의 첫 목적은 '졸업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대학은 졸업장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다. 물론, 3학년이 된 지금의 나는 이 생각들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계기 3가지를 소개해 보려 한다.

첫 번째. 교내·외 공모전 참여

성인학습자들 또한 학령기에 입학한 학생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리고 싶어서 교내·외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BIFEC 학습 UCC 공모전'은 부산, 울산, 경남 1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회로 학습에 대한 영상 제작이 주제인 공모전이다. 여름방학 동안 동기 언니와 함께 시나리오, 촬영, 편집 등을 하며 정말 즐겁게 영상을 만들어 나갔다.

미래융합대의 특성이 다양한 연령층의 학습자들인 점에 착안하여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인 점을 강조하였고, 대상이라는 명예로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후 교내에서 개최된 '혁신 수업 에세이 공모전' 최우수상, '후배에게 추천하는 교양강좌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성인학습자도 할 수 있다는 목적과 성과라는 보상이 지금까지도 나에게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교내 핑크캠퍼스 축제! 동기들과 함께!



BIFEC 학습 UCC 공모전 시상식



부경대 미래융합대학 홍보대사 활동

두 번째. 부경대 미래융합대학 홍보대사

나는 입학 후 3학년인 지금까지 3년 동안 교내 입학 홍보대사를 맡는 중이다. 처음엔 공공의 교육기관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었다. 사기업과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했고, 교육기관의 사회적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홍보를 진행해야 했다.

이러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마케팅의 다양한 측면을 배우게 되었고 이 점이 다양한 시각을 지닌 눈을 길러주어 회사 내의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홍보대사 중 대표 리더가 되어 다양한 연령층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고, 리더로서 홍보의 방향성을 행정실과 협의하는 등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경험하게 되었다.

세 번째. 제2의 직업을 꿈꾸게 해주는 학과 전망

내가 재학 중인 평생교육·상담학과는 평생교육사와 상담사라는 두 가지의 진로 방향을 가질 수 있다. 내가 회사에서 직무와 관련된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직접 겪고 있는 교육학과(평생교육) 상담학을 전문적으로 배워 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후배에게 추천하는 교양강좌 공모전 시상식

직접 경험해 보았고 매일매일 활용해 나가고 있기에 누구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이 자신감이라는 거름이 제2의 직업을 꿈꾸게 해주었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평생교육 또는 상담 분야 기관에 취업하겠다는 목표도 생기게 되었다.

'또 다시 시작, 인생의 다음 단락

최근 회사 내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12년간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했던 나 또한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 다른 지역, 처음 해보는 업무라는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말했던 3가지 계기를 통해 성장한 나에게는 지루한 삶의 선물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다.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다. 나는 취업이라는 마침표 뒤에 엔터키를 누르고 대학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제는 대학이라는 마침표 뒤에 엔터키를 누르고 평생교육사, 상담사라는 글자를 새겨 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2년 뒤 졸업 후 변화된 나의 모습이 기대된다.



4년이라는 시간동안 써 내려간 나의 대학 비망록

LiFE 사업 학습수기



중학교 시절, 인생에서 대학이라는 선택지를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전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취업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는 나와는 거리가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중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LiFE 사업을 통해 설립된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2019년 3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계절에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나에게 5년 만에 들어온 학교라는 공간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으로 느껴졌다.

첫 수강신청, 처음 보는 동기들 그리고 강의실 풍경 등은 내가 대학생임을 실감나게 해주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전기기술자인 나에게 전공수업과 공학수학 등의 같은 공학 학문들은 직장에서 보는 전기 설비들을 이해하는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고, 역사나 직업윤리 같은 인문교양 과목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의 깊이를 심화시켜 주었다.



학생회 활동사진



시험 응원전

처음에 입학할 당시에만 해도 대학이라는 곳이 나에게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대학은 대학을 다니면서 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주었다. 하지만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학교를 간다는 것은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나와 다른 환경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수업을 듣는 일은 회사만 다녔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나를 변화시켜 주었던 경험은 학생회 활동이다. 4학년에 나는 미래융합대학 총학생회에 기획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조기졸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내가 학생회를 하게 된 계기는 2년에 걸친 코로나19에 의해 침체된 학내 분위기를 한번 되살려보고 싶었기도 했고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더 이상 경험할 수 없는 활동이었기 때문이었다.

학생회를 하는 동안 중간/기말고사 응원전, 체육대회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풍성하게 채워 나갔던 것 같다.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체육대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체육대회를 기획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2년 전 자료를 참고하여 콘텐츠를 채우고, 행정실과 협의하여 체육관 대관, 예산 확보 등을 해나가면서 어려워 보였던 체육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을 보았고 임원들과 같이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준비한 결과,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체육대회는 학생회 임원으로서 학우들에게 대학 생활 중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던 일이었다.



학생회 활동사진



졸업식

졸업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되돌아 보면 대학교는 나에게 많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다. 수업을 통해서 지식과 학문을 바탕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학생회 활동을 통해서 어려워 보이는 일 일지라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한다면 무엇이든 이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알려주었다.

대학에서 배우고 느낀 이런 생각과 경험은 지워지지 않을 비망록이 되어 내 인생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졸업식에서 받은 한 장의 학위수여증...” 이것은 나의 4년이라는 시간의 결과물이며 20대의 끝자락에 남기는 기분 좋은 발자취이다.

이러한 선취업·후진학을 가능하게 해준 LiFE 사업이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써 정착했으면 좋겠다.



체육대회



JOMO(joy of missing out)

현재에 충실하고 이순간에 집중하는
즐거움을 느껴라

LiFE 사업 학습수기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상지대학교 미래라이프대학 사회적 경제 전공 공부를 하면서 학습에 필요한 참고 서적들은 매 수업마다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그 책들은 한결같이 시각적으로 두꺼운 책 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일단 전공수업에 필요한 참고 도서라니 구매는 했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막막하던 순간 ‘성인 학습자 스터디그룹’이라는 동아리에 응모하게 되었고 서로 격려하면서 재미로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동기들과 모여서 읽고 관련된 전문서적을 참고 도서처럼 읽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성에서 독서 토론 활동

이에 『넋지』(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저)라는 도서를 선택해 학습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사회적 경제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성인 학습자 간 상호 협력 학습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쓰기 학습활동의

역량도 높이고 동기간 네트워크도 형성하여 다음 학기의 기초 학습 역량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난 후 소감

저는 책을 거의 읽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처음 한 단락을 읽기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리포트 과제보다 동기들에게 내가 읽는 분량을 처리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것이 더 두려웠나 봅니다. 힘들음 극복하고 겨우 10장 정도의 책 단원을 읽고 서로 읽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 책 내용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낯지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점점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주차, 2 주차 진행됨에 따라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고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도움 없이 성인 학습자만으로 구성된 관계로 도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로 읽은 부분을 공유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되고 다음 학기의 기대를 높이는 효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주에서 독서 토론 활동

다른 지역의 3인방은 주 차별로 횡성, 여주, 제천지역을 돌면서 지역의 특색도 알게 되고 서로 더욱더 깊은 얘기로 친밀도도 쌓을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 차별 학습계획에 맞게 내용 정리를 하다 보니 학습 능력 향상은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원주에서 독서 토론 활동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고 난 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기는 다른 환경과 다른 삶을 산 3명의 학우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같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집단지성의 통찰력으로 사회적 경제 관점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했습니다.



상지대학교 학교내에서 독서 토론 활동

예를 들면, 내 일터에서 슬러지 걷어내기, 일하는 방식 분석, 디자인 싱킹 (design thinking)으로 변화 끌어내는 방식 고안하기는 실천력이 높아지게 됨을 배웠습니다.

사회적 글쓰기의 공익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기획의 중요성도 인식했습니다. '기획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현장에서의 기획력을 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습활동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는 내내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데?”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선택 설계자가 되어 사회적 경제에 어떤 ‘넋지’를 넣을까?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 인성 교육 및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TOCIE 생각도구’를 작동해 볼까? 일 잘하는 방법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아리 구성원들이 매우 만족하여 책을 읽고 정리하는 글을 쓰며 학습의 효능감이 높아져 다음 학기에 공부해야 할 내용에 지금과 같은 스터디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고 학습동아리 활동을 또 하고 싶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학습을 마친 후 성과

학습 동기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새로운 참고 도서에 도전할 수 있었으며 7권의 책을 100%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여 나눠서 읽고 공유하였으니 다 읽은 셈이지요. 처음엔 이 학습모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150% 성과를 내었습니다. 8회차의 모임을 10회차의 모임으로 만들어 냈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는 참고 도서를 통해 전공 서적에 도전할 수 있는 학습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학습 효율성을 200%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인 학습자 간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 동기간 친밀도가 향상되었으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니 학습의 시너지로 효과가 좋았던 거 같고 서로 격려하며 독려하여 끝까지 책을 다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읽었다는 성취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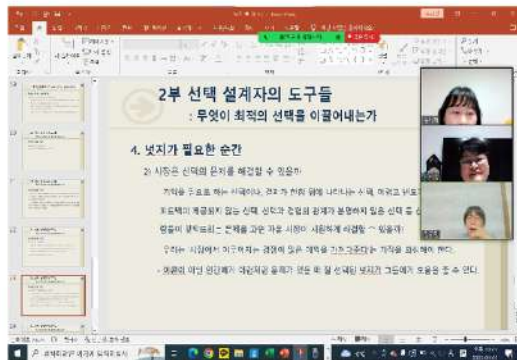
학습을 마치며

이번 겨울방학에 한 공부는 팀명처럼 ‘현재에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즐거움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충실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고,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독서가 익숙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도 빨라지고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또 책 속의 훌륭한 어휘에 감탄하면서 표현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전공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넋지들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팀원들과 생각하고 토론함으로써 좀 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즐거웠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던 계기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원주지역 독서 토론 활동



줌으로 화상 독서 토론 활동

쉽과 함께

LiFE 사업 학습수기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 학습자 황선옥입니다.

꿈도 많던 어린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중퇴를 하고 일선으로 나가야만 했었다. 배움에 항상 목말라 있던 나는 환갑의 나이에 고등학교 자격증을 따고 학번을 받고 상지평생라이프대학에 입학했다.



스터디 활동

다른 사람만 다니는 대학인 줄로만 생각했던 곳에 내가 다닐 줄이야. 꿈만 같다. 난 교수님의 가르침에 조금씩 적응해갔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인학습 스터디가 있다고 해서 6명이 한그룹을 이루어 열심히 한 결과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 해 레저레크레이션과로 나뉘고 우린 레저과 6명이 모여 겨울방학 성인학습 스터디에 참가하게 되었다. 장소가 여의치

않아 우린 교수님 연구실에서 모이고 빈 강의실에 모여 웰니스관광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웰니스관광의 개념과 이해, 특징, 치유관광, 힐링관광, 신문기사로 바라본 웰니스트렌드, 한국관광공사 추천웰니스 관광지, 웰니스에 대한 국제적 고찰 등등 8주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 나갔던 것에 대해 간략하게 써 보겠다.

- ▶ 신문기사로 바라본 원주 웰니스트렌드에 대해 처음으로 알아보았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58곳을 웰니스관광지로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원주뮤지엄산을 비롯해 8곳이 선정되었고 치악산과 성황림, 간현관광지로 출렁다리, 울렁다리 등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있어 액티비티를 동시에 즐길수 있는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스터디 활동

- ▶ 웰니스는 사회적, 신체적, 영적, 정서적, 지적, 직업적, 환경적, 재무적 웰니스로 나눌수 있다고 한다. 웰니스 관광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스파, 휴양, 뷰티, 건강을 향상시키고 여행을 떠나 체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웰니스 관광의 특징과 유형은 힐링여행, 명상관광, 레저, 스파 등이 있다.

《뷰티스파》 부산 아난티 의원 : 웰빙식단과 디톡스 테라피를 통해 휴양의학 접목 면역세포, 혈관, 소화기관, 피부기능에 대한 면역력 치료기능

《힐링명상》 뮤지엄 산 : 공간과 자연 예술이 전하는 영감과 여유로움으로 나를 돌아보는 정신적인 휴식 명상

《자연 숲 치유》 서귀포 치유의 숲 : 해발 320~760m에 위치, 난대림과 온대림, 다양한 식생 분포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체험으로 각종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한방》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 청정 자연 속에서 전통방식의 이색 한방 쑥뜸체험항토 한증막 등 건강과 힐링체험 마을에 대해 알아보았다

- ▶ 국제적 고찰로는 영국에 위치한 고대 로마시대 약 2000년 된 공중목욕탕이다. 하루 6000~8000명의 고객을 수용하면서 15세기까지 공중목욕탕으로 인한 성병, 나병, 전염병 등 질병감염으로 영국의 배스 웰즈지역 추기경은 나체로 혼탕 금지령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유럽의 건강관광 역사는 수 많은 온천, 미네랄천, 로마인들은 유럽 전역에 치유의 목적으로 스파와 목욕시설을 건축했다.

우리는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공중목욕탕의 유래가 이렇게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벨기에 스파, 영국의 배스, 헝거리 부다페스트, 독일 바텐바턴의 시설들을 보았고 클레오 파트라의 우유목욕은 누구나 한번쯤은 따라 해보고픈 목욕법이다.

우리는 한국관광공사 웰니스 관광지를 분석하면서 전국 곳곳에 가볼 곳이 너무도 많았다. 김천에 자작나무숲은 맨발로 체험해보고 싶은 곳이고 경남 거창 우둔산 Y자형 출렁다리는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도 멋있고 아름다워서 다음 방학 때 꼭 한번 가보자고 했다. 이번 스터디는 너무도 유익한 시간들이었다고 한다. 우리 레저팀은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8주를 잘 마쳤다.

컴퓨터 미숙으로 마지막 정리가 잘 안되어 난 조교님을 찾아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동료들한테도 메일을 보냈다. 동료들은 그동안 고생했다는 격려에 울컥했다. 그리고 잊고 있었다.



스터디 활동

근데 어느 날 2022학년도 성인학습자 상지스터디그룹 수상자 안내문이 날아왔다. 맨 위에 대상이라고 내 이름과 함께 장학금 1,000,000원이 적혀있었다. 난 너무도 기뻐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처럼 경중경중 뛰며 기뻐했다. 이 기쁜 소식을 교수님과 동료들한테 전하고 우린 서로 대상 받은 것에 기뻐했다.

다음날 학교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도 스터디 대상 받은 것에 대해 축하해주셨다. 교수님들의 칭찬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에 신이 났다. 1학기에 최우수상 받고 2학기에

대상까지 정말 나에겐 행운입니다. 이 행운을 주신 상지 미래 라이프 대학교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지 성인학습자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터디 활동



LiFE, 끊임없는 학습으로 드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삶

LiFE 사업 학습수기



성인학습자의 도전이, 국가 재정 지원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창업지원제도와 만나 실제 창업에 이르는 진정한 경력개발 모델을 소개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잘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배우세요!

배우지 못하면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배우기 싫으신가요?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이미 받은 배웠습니다!

포브스에 선정되지 못한 한국에서 가장 바쁜 대학생 1위!

(주)○○○ 스타트업 대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전공 4학년,

2023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도시농부 1기 ‘아티’ 이준원입니다!

(주)○○○은 2020년도 2학기 “데이터를 활용한 스타트업”이라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창업 관련 강좌에서 발아하여, 본교 창업지원단에서 떡잎을 키워 가고 있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ICT 기반의 식물 생육 AI학습 및 AR맞춤 안내 플랫폼”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4차 산업 기술이 3개나 들어간 하이테크놀로지 기업! 제가 특별해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미래융합대학과 학내의 다양한 사람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의 ‘배움’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앉아서 공부하기? 책읽기? 시험? 평생교육은 그럼 매년 공부해야하나?

성인학습자의 가장 큰 매력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른 기술, 능력, 인생! 이미 한 영역에서 한 몫을 하고 있는 사람과의 ‘지식적, 기술적

교류'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은 “공유”를 강조합니다.
이는 AI의 강점인 “여러 분야의 효율성 증대”와 동일합니다.

20대에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고! 3개가 다 있어도 부족한데, 3개가 다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듣기, 질문하기, 발로 뛰어다니기. 공부하기. 제 사업은 그렇게 키웠습니다.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냐고요? 대학교 동기에게 묻고, 교수님께 묻고, 학교에다 물어보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즉, 대학은 배움의 장이자 교류의 장입니다. 그것도 고급인력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질문을 하고 일을 맡겨야 하는데,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대학에서 만난 동기 중 누구 더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대학입니다!

제가 하나도 힘든 대학을 두 개나 다니는 이유는, 사업과 인생은 사람으로 운영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없던 식물전문 지식을 배우고, 최고의 인재를 찾아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고,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한 한 발자국은 적재적소의 사람을 데려오는 것! 즉, 인적 네트워크의 장을 발견!

바쁜 삶을 후회는 한 적 없는지 궁금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학교 가면 언제 쉬는 거지?!
주말에 TV 보고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소비하는 휴식은 NO!
나는 배우면서 신다! 수업 끝나고 교류하는 차 한 잔 또한 각별합니다.

대학을 좀 더 빨리 다닐 걸 후회 한 적은 있습니다. 2022년 2학기 미래융합대학 벤처경영학과의 “기술사업화전략” 제가 2년 동안 돈으로 메꾸고, 현장을 구르면서 알게 된 내용이 3개월짜리 수업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었을 때 “아... 저 수업을 일찍 들었으면 최소 반년은 더 빠르게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미 몸으로 알게 된 내용이었지만 본 전공인 융합기계공학 외 벤처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그간 운영하며 미흡했던 부분, 앞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미래융합대학에서 탄생하여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
지역을 넘어 국가적 인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인생에 배우지 않는 시절은 없습니다. 배울수록 삶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질 향상,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발돋움 LiFE

LiFE 사업 학습수기



나는 다른 대부분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당시 대학 진학을 갈망했으나 부모님의 이혼을 겪으며 가정 형편 탓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다.

근래 대학교 행사로 같은 학과 전 학년이 모인 행사에 참여해 보니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 후배들이 아주 많았다. 지금이야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학교가 바뀌면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후배가 있을 정도로 취업처가 많이 좋아진 상태였지만, 내가 졸업할 당시만 해도 사실상 취업처는 생산직이 전부였던 까닭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반도체 생산직에 근무했다.

순천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리병 속의 벼룩'으로 살아왔다. 살아생전 홀로 벌이로는 도저히 대학 등록금을 감당해 줄 수 없다는 친아버지 뜻으로 생산직에 곧바로 취업하여 취침과 출근을 반복하기도 벅찬 3교대 근무에 적응하다 보니 내가 벌어서라도 언젠가는 대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처음의 다짐은 간 데 없이, 1m를 뛰어오르던 벼룩이 유리병 속에 갇혀 30cm만을 뛰어오르며 유리병 뚜껑이 열리고도 고작 30cm만을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것처럼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오래전만 아버지가 넣어둔 유리병에 갇혀 진작 뚜껑이 열린 줄도 모르고 30cm만을 뛰어오르며 지내온 것이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생산직을 그만두게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사무직에 취업하고자 했지만, 생산직 경력과 고등학교 때 취득한 컴퓨터 자격증으로 전무한 이력서로는 사무직으로의

취업에 고전하기 일쑤였고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못해 핸드폰 대리점으로 취업하기에 이르렀다.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하려면 추가로 자격증을 취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늦게 퇴근하는 와중에도 주경야독하여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했다.

대리점에 재직하던 중에 사무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해서 좋은 기회로 관세사 사무실에 취직하게 되면서 핸드폰 대리점은 퇴근 시간이 늦어 국비지원교육에 출석률을 맞출 수 없어 전산회계 자격증은 사비로 취득했지만, 관세사 사무실에 취직한 이후에는 전산 세무 2급의 자격증에도 국비지원교육으로 도전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생산직과 핸드폰 대리점 일과는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자격증 공부에 물꼬를 튼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잇고 살던 대학 진학에 다시금 욕심이 생기면서 나는 어느덧 다시 19살로 돌아가 야간 학과를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3차례 직업이 바뀌면서도 놓지 못한 때 늦은 진로 고민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로부터 ‘너는 진로 고민을 10년째 하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내 적성과 다르고, 나의 진로 희망과 달랐던 길을 걷다 보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채 10여 년을 지낸 까닭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일반 4년제 대학인 순천대학교에도 야간 수업으로 이루어진 미래융합대학의 존재 여부를 몰랐는데, 근처 전문 대학 야간 학부들을 고민하며 가족들과 상의했더니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바뀐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생이 제 친구들이 몇몇 다니고 있다며 순천대학교 물류비즈니스학과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다. 막상 같이 다니자는 내 제안에 자신은 지금으로 충분하여 공부에는 뜻이 없다는 농담 섞인 거절을 한 동생은 입학하지 않았지만, 동생 덕분에 알게 된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물류비즈니스 학과에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고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으로 2019년에 입학했다.

물론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시선만 받고, 격려와 응원만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 20대 후반 이던 나이에 4년제 대학을 입학해 버리면, 결혼도 해야 하고 출산도 하게 될 텐데 졸업까지 할 수 있겠냐는 걱정 아닌 걱정 섞인 조언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 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흐른 뒤에 후회할 바에는 오늘, 그리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였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더라도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한 가지 후회한다면 조금 더 일찍 입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내가 유리병을 좀 더 빨리 깨고 나왔더라면 하는 후회만이 있을 뿐이다.

그랬더라면 20대에 입학해서 30대에야 졸업하는 현재의 나이가 아닌 보다 젊은 나이의 내가 현재에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재학 중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지만, 온전히 누군가의 엄마로서만 살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자녀의 인생이 소중한듯이 내 인생 또한 하나뿐인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생전 약주를 좋아하셨던 친아버지는 늘 술에 취할 적마다 아버지가 주사를 부리는 모습에 화를 벌컥 내며 방 문을 걸어 잠그기 바쁘던 언니, 동생과는 달리 같이 안주를 축내가며 죽치고 앉아있던 둘째 딸에게 당신의 왕년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8남매 중 늦둥이로 태어나 이른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고등학교를 손가락 하나 들고 다녔다는 이야기, 1반부터 끝 반까지 쪽 돌고 나면 점심밥을 손가락 하나로 친구들 도시락을 십시일반 빼앗아 먹어 해결하고 자치기를 하다 영어 선생님 아들의 눈을 실명하게 하여 영어 시간 때마다 이유 없는 체벌에 영어를 싫어하게 된 이야기 등 했던 말을 또 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처음 하는 이야기처럼 늘어놓고는 하셨다.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야 넘치겠지만, 내가 나중에 늘어놓게 될 왕년의 이야기는 당신과는 달라야 했기에 지금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며 관세사 사무실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출산 이후 재취업을 준비할 때에도 사실상 출산과 육아로 인해 단절된 경력임에도 관련 전공으로 대학교에도 재학하며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우대받아 면접 끝에 현재의 수출입 검역회사로 취업하게 되었다.

반도체 생산직으로 척박했던 주어진 취업처를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는 기분에 뿌듯했듯이 졸업 후의 나의 모습은 또 얼마나 한 발짝 나아가 있을지 기대되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를 다시 19살의 소녀로 되돌려 놓았고,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금 도전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전공 학과를 졸업한 미래의 나를 기대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 나의 LiFE 학습 후기이다.





나는 대학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LiFE 사업 학습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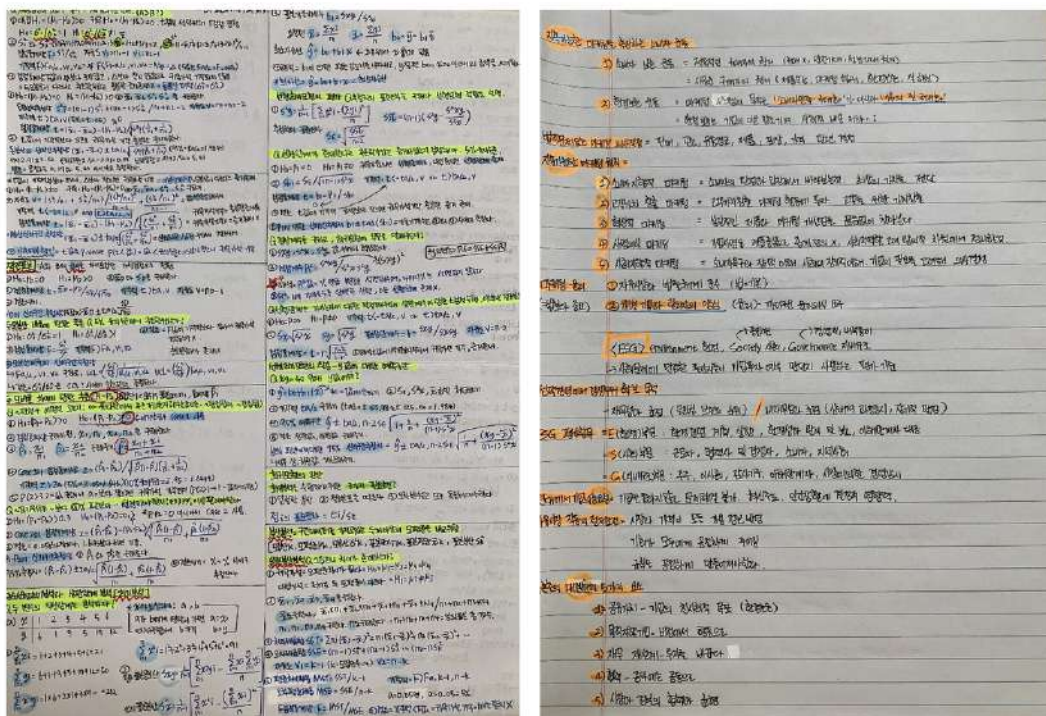
제법 규모 있는 반도체 그룹사에 입사한 20살은 3년 뒤 신입사원 티를 벗기 시작했고, 사회인이 된 자기 모습에 한껏 취해있었다. 또래 친구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경력을 쌓았으며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 '이러다 30살이 되기도 전에 1억 모으는 거 아닌가?' 하는 우스운 상상을 했었다. 성실하게 꾸준히 경력을 쌓아가면 누구보다 빨리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 믿었다.

회사에서 실무와 이론을 함께 배우니 이론만 알려주는 대학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학사'라는 증표보단 '경력'이 더 멋있다고 자만했다. 근속 4년 차쯤 새로운 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지만, 고졸인 나에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레벨업 된 업무를 받을 수 없었다. 회사 적응도 빨랐고, 재직기간 동안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맡은 업무도 문제없이 처리했다. 같은 일을 3년 정도 했으니 레벨업을 시켜주는 것은 타당했다. 하지만 '고졸'이라는 유리천장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은 7년 차가 된 지금 생각해도 웃기는 이야기다.

그때 나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고, 레벨업을 위해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상사에겐 학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세웠다. 입학 후 대학에서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WHY? 에 대한 답변을 찾게 해주었다. 왜 그런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왜 그런 계산법을 사용했는지, 왜 단어 선택 하나에도 많이 고민하였는지, 인사평가 제도는 왜 그렇게 구성하였고 왜 그런 평점을 제공하였는지 등 좁은 시야로 바라봤던 이론을 확장해 주고 바로잡아 주었다.

재무팀인 나에게 통계, 코딩, 마케팅, 코칭, 철학, 프로그래밍, 인사조직관리, 회사법, 비즈니스 영어 등은 아주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 기회는 나의 업무 분야 확장에 도움을 주었다. 2학년 때 ESG를 처음 접하고 관심이 생겼는데 실제로 일 년 뒤 재직 중인 회사에서 ESG가 언급되고 ESG TFT가 구성되고 있었다. 그 당시 대학에서 접한 기회를 언급하며 ESG 분야를 배워보고 싶다고 요청해 현재 TFT 구성원으로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값진 경험을 하였다.

아주대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다. 나의 동기들은 친구이자 회사 상사 같은 존재다. 혼자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동기들은 나보다 다양하고, 어렵고, 책임감 있는 업무에 종사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각자 고민이나 상황을 공유하면 서로의 상사가 되어주며 의견과 경험을 나눈다. 이 과정에서 모르던 분야의 직업, 사회, 이슈들을 배울 수 있었고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업무에 대해 예상할 기회가 생긴다. 이처럼 아주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는 나를 가장 공감해주는 친구와 사회 멘토를 만들어주었다.



개인 학습활동

학업을 배워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상사와 실제 업무능력이 향상된 나는 원했던 업무는 물론 직속 상사, 팀장, 본부장의 추천을 통하여 발탁승진을 얻어냈다. 승진한 뒤 인사 평가가 공개된 시점에 상사에게 직접 문의했다. “저는 왜 갑자기 발탁 승진을 한 건가요?”, 돌아오는 답변은 회사 생활의 고단함을 보상받는 듯했다. “본인이 잘해서요. 나날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학 다니면서 시야가 넓어진 걸까요? 업무가 더 섬세해지고 100%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보입니다. 새로운 업무를 배워보고자 하는 열정도 좋습니다. 발탁 승진은 본인 역량입니다. 회사와 대학을 동시에 다니며 열심히 사는 모습에 가끔 저도 반성합니다.”

고작 유리천장 1장을 부신 걸로 보이지만 유리천장이 깨진 파편은 무기가 된다. 평범한 고졸 사원에게 대학은 유리천장을 깰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고, 조용한 사무실에 유리가 깨지는 소란스러운 소리는 회사 전체를 나에게 주목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400명이 바라보는 무대에서 떳떳하게 발탁 승진을 얻어냈고 깨진 유리 파편은 상처를 주었지만, 나의 무기가 되었다. 투명함에 두께를 알 수 없던 유리천장이 나의 무기였다고 알려준 것은 대학이었다.

나는 대학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학업을 병행하며 주경야독하는 힘들이 있지만 대학 진학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대학은 회사의 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목표를 만들어주었고, 언젠간 사장이 되어보자는 욕심을 가져다주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유리천장은 다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깨질 수 있기에 더 무서운 법이다. 처음 깨진 유리 파편은 나만의 무기로 삼아 주변 방해물을 차단하고 다음 유리에 집중하고 싶다.



오리 날다

LiFE 사업 학습수기



가을 소풍(울산 대왕암)

고등학교 진학 무렵 가세가 기울어 대학을 포기하고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 취업을 하고 방송통신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80년대 후반의 사회적 통념상 일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중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기 계발 없이 시간을 보내던 중, 주변의 권유로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에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령기 학업에 대한 갈증 해소와 캠퍼스의 낭만 등, 만학도로서의 대학 생활에 대한 설렘을 느낄 겨를도 없이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된 대학 생활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불운의 20학번”, “비대면 교육”, “마스크”.

컴퓨터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라서 생경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안타깝게도 포기를 선택하는 이도 속출했습니다. 前代未聞 猖獗한 코로나는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지만, ‘잃은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다’는 말처럼 같은 시간과 상황을 공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결속을 다지고,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는 등, 내실을 닦는 시간이 되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를

위한 대학이라는 특성상, 교수님들의 섬세한 배려와 학교 측의 지원, 그리고 소그룹 스터디를 통한 학습 공유 등으로 초반의 어려움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표되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라는 공지가 뜨면 전날부터 설렘에 잠을 설쳐댔 정도였고, 끝이 없을 듯했던 터널은 우리의 염원이 전해졌던 건지 서서히 학교의 교정에서 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입학하고 2년여 동안 얼굴도 모르고 지낸 시간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즐거움이고, 위로이며, 행복이었습니다. 사이버 수업으로 화면에서 뵈던 교수님들의 대면 수업은 마치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봉사활동



평생교육사 실습

정상으로 돌아온 교정은 그동안 못다 한 대학 생활에 대한 갈증을 풀어내듯이 비교과로 열리는 교육과 강의 세미나, 컨소시움, 포럼 등으로 채워졌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만, 나이를 잊은 채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시간을 쪼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와 특성을 살린 산업체 탐방을 통해 百世時代에 걸맞은 인생 2모작을 계획하며 자격증 취득과 복지 현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윤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전담으로 근무, 노인복지 현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사회적 기업 운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딘 걸음의 대학생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따로 있고, 젊은이들의 전유물로만 알았던 “꿈”을 갖게



산업체 탐방 활동



글로벌 헬스케어 워크



추계 체육대회

되었고 미래를 설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전문가 강의 개설을 위해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아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게 되었고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물론 老學이라 단지 졸업장이 목표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라는 공간은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의 생각을 증장시키고, 교수님들의 실천적인 강의는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환원에까지 이르는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교육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고목나무에 꽃을 피우게도 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 ‘5년만 젊었더라면...’ 4년 전 대학 진학 고민을 할 무렵,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더 큰 후회를 할 것이라는 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선택했지만, 그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소극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갈무리해 왔던 저의 결정과 지금까지의 실천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대학 4학년인 지금 저는 나이라는 장벽으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선택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때”라는 것은 시간적 의미가 아닌 “용기”와 “준비”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 문 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LiFE 사업 학습수기



LiFE 사업 참여로 변화한 삶

“인생은 타이밍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 깊이 가지게 된 인생 좌우명 같은 말이다. 직업 특성상 현장 일이 많아 여러 사고와 직면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천운을 타고난 사나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니 좋은 일 더 많이 하라는 것으로 알고 항상 봉사하고 배려하는 인생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지역사회봉사활동(자유총연맹)

특히 요양원, 요양병원, 복지관 등 하자 보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사회 여러 봉사 단체(의용소방대, 새마을 청년회, 한국자유총연맹, 경로 후원회, 동래경찰서 온천3파 생활안전 협의회, (사)희망을 여는 사람들 등) 활동을 하면서 독거 어르신들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보수, 수리 등 재능기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던 중 영산대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산대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여 노인 복지에 대해 공부를 하며 평소에 느꼈던 복지 사각지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사회복지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인생 제2막을 노인복지에 관련된 방향으로 결정하고 현재(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이르렀다. 학업을

하면서 내 인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30여 년간의 작은 봉사활동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행복감을 위한 것이었다 생각하니 이 모든게 내 인생의 부족함을 치유하게 해 주는

보약같은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인생도 겸손함, 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나 자신 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봉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사회복지학과대표 업무(행사 등)

가족이나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나의 학업에 대한 열정에 칭찬을 하며, 저를 따라 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학년 때부터 사회복지학과 대표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나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또한 미래융합대학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성인학습 고등학교(부경보건고 등)에서 우리 대학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영 마운틴 동아리도 지도교수님의 지도 아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며 현재 75명의 회원으로 왕성하게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가졌고, 3학년이 되면서 영산대 미래융합대학 2023년 제6대 학생회장에 당선되면서 740여 명의 학우들을 대표하여 이젠 미래융합대학 전체 학생들과 소통하며, 학우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냥 무늬만 학생회장이 아니라 활기차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이다.

이제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뭔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영산대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함으로써 학업과 일을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내 인생 삶의 변화를 몸소 느끼며,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인지도가 더 높아진 것 같고, 영산대학교 만학도로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어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더 큰 욕심이



영마운틴 동아리활동

생겨 앞으로 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 노인전문요양시설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미래융합대학 제6대 학생회장으로써 학교와 교수님 학생들 간에 소통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인생 제2막을 멋지게 길을 만들어준 영산대 미래융합대학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앞으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설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미래융합대학 제6대 학생회장 활동





값진 기회, 그리고 도전해야 얻어낼 수 있는 것들

LiFE 사업 학습수기



안녕하세요! 직대딩 강민교입니다. 이제 직대딩이라는 단어는 직장인과 대학생의 합성어로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규모가 커지며 예전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학습 수기를 통해 제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진행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공유하려고 합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연구생, 대외활동 등을 비롯한 5개의 키워드로 남기는 제 경험이 현재 저와 같이 후진학을 선택하셨거나, 결정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준 학업의 시작과 복수전공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입학 당시 대학교 공부와 학점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직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대학교 진학은 고졸이라는 저에게 아쉬운 학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학점 상위 10% 내 우수생을 유지하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과 교수님들의 수업

교수님께서 전공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 설명을 위해 교재 내용 외 추가로 자료를 준비해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무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업 종사자들은 책의 용어를 실제로 어떻게 부르는지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며 웃었던 게 떠오르네요. 혼자서 책만 읽고 공부했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정을 기반으로,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학구열을 키워나갔습니다.



학생회주관 신입생 OT 발표

2) 새로운 분야에 눈을 뜨게 해준 복수전공

제 본 전공은 메카트로닉스공학이고, 2학년부터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공은 코딩이라는 분야가 유망하다고 하니 선택한 막연함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어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에서 B라는 아쉬운 학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 등의 미래기술과 현재 업무의 연관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공부한 결과 전공과목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본 전공, 복수전공 외 전공까지 3개의 프로젝트 과목에 참여하여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분야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프로젝트 협업을 제안받아 학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공과목에서 깊게 학습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사회로의 도전과 수많은 시행착오

올해 단과대 대표자 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대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은 기획, 복지, 홍보로 업무를 분담하여 단과대 행사, SNS 운영을 통한 소통, 동아리 활동 지원, 입시설명회 주관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학우분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모두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내 전공 지식과 역량에 힘을 실어준 자격증

1학년에는 전기기사, 2학년에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정보처리기사 필기 시험을 합격하여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자격증 모두 제가 배웠던 전공 과목들과 일부 연관성이 있어 큰 어려움 없이 합격 점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교내 미래융합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Career LiFE 프로그램과 LiFE 포인트제로 응시료 및 취득 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업 속에서도 부담 적게 자격증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취득한 두 자격증은 사업장에서 관리자 직책을 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선임 자격증입니다. 특정 업무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과정과 결과가 제 역량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전을 통해 인정받은 우리의 아이디어

현대자동차 후원 '미래자동차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장려상, 기아자동차 주관 '레이 PBV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본교 디자인 융합,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과 팀을 구성하여 시작한 도전이었습니다. 관련 분야 논문 검색과 작성, 노선, 피그마 등의 협업 툴 활용, 제안서 및 PPT 제작과 발표까지 공모전



현대차 공모전수상

마다 새롭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팀원들과 한 주제를 목표로 회의하며 준비한 과정, 그리고 큰 규모의 기관에서 직접 발표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성취감은 앞으로 하게 될 제 도전의 큰 기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아차 공모전수상

올해는 학과 후배들과 'KG 모빌리티 디자인 공모전'에 참여하였고, 본선 진출과 함께 수상이 확정되어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학부연구생을 통해 새로운 목표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자율시스템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 판단, 제어기술을 분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1/10 Scale 차량 제작과 함께, 컴퓨터 비전 및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제 자율주행 경진대회 본선에 참여하게 되어, 퇴근 이후 매일 연구실 팀원들과 만나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특강이나 학생 참여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이 많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때로는 업무 일정이 겹쳐 바쁘고 벅차더라도 즐겁게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부연구생활동

이 외에도 단과대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인하프렌즈, 배드민턴 동아리 설립과 운영, 그리고 교내 밴드 공연 활동까지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도 생각하지만, 모두 대학교라는 시작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도전이었습니다. 따라서 후진학이라는 값진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하자고 오늘도 마음먹으며 맡은 역할에 책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대학원 진학, 스케줄 관리, 진로, 취미 등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3학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많은 도전과 성과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 일·학습 병행을 꿈꾸는 모든 분들이 역량을 개발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나의 자서전(걸림돌을 디딤돌로)

LiFE 사업 학습수기



걸림돌을 디딤돌로

이른 새벽, 문 앞에 놓인 신문 한 부를 옆으로 치웠는데,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차곡차곡 쌓여 간다. 그러다 하루는, 슬쩍 신문을 두고 가는 청년을 마주했다. 쌀쌀한 기온에도 구슬땀이 맺혀 있다. 참 옛되다. 황하니 달음박질하는 청년의 뒷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다. 고교 시절. 지인 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시고, 어머니는 누우셨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대학 진학 대신, 하루 두 번 신문을 돌렸다.



튜터링 활동

대학생 친구들이 부럽던 20대 때, ‘나도 남들처럼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배달 일과 노동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 하여, 9급 공무원과 한국통신공사 6급 공채에 동시 합격했고, 주경야독으로, 독학사(컴퓨터과학 이학사, 정보통신공학사)와 방송대(경영학사, 법학사) 4개 학위를 받았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중2 시절, 선친께 참고서비를 말씀드리자, “동대문 지하 계단으로 오라”하시고, 행상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내어 주셨던 이유도, 부모님 직업란에 ‘상업’ 대신 ‘노동’이라 굳이 솔직하게 적어 주셨던, 그래서 학기 초마다 반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운 손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도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버린 지금, 나 역시

대학 졸업 후 이제 막 입사한 어린 후배들에게 “정직과 성실함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똑같이 말해주곤 하다가, 평소, 독학으로 인한 단편적 지식체계에 머물러 있던, 정보기술과 마케팅, 경영관리 지식을 하나로 융합하고픈 학업 동기가 생겼고, 산업 실무 경영능력 연마라는 학과 교육목표를 접하게 되어, 32년 늦은 대입 원서를 들고, 친구들은 예전에 마음껏 젊음을 누렸을 캠퍼스를 찾았다. 인하대의 하늘은 무척이나 푸르렀고, 뒤늦게 스무 살의 설렘으로 교정을 거닐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21C 세계 최고를 꿈꾸는 자랑스러운 인하인’ 이 말이 참 좋았고, 마음에 와닿았다. 인하대 산업경영학과에서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이유다.

20대 젊은 학우들 속에서, 맨 앞에 앉아 교수님 강의 전체를 필기하고, 귀가 험도록 반복하여 다시 듣고, 매일 새벽 2시간씩 정리했다. 학생 중에, 낮은 성적으로 중도 포기를 고민하던 학우들을 모아, 과목별로 지도해 주었는데,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를 통해, 학교 튜터링 프로그램 최우수팀에 선정된 날, 참여한 학생 모두가 서로 부여안고 엉엉 울었던, 잊지 못할 별빛 같은 추억도 갖게 되었다.

입학 후, 매일 3시간만 잠을 자며, 업무와 병행으로, 자주 몸살을 앓았고, 입천장이 다 헐어 내려앉곤 했어도, 새로운 학문과 지식을 깨달아 가는 기쁨에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토록 부럽게만 느껴졌던 대학 캠퍼스를, 비록 30여 년이 늦었지만 걷고 있는 지금. 나는 행복하다. 매 학기 전 학년 수석 전액 성적장학금을 받고, 평점 4.42/4.5로 올 8월 조기 수석 졸업을 앞두고 있어,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다.

끝나지 않은 나의 자서전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싶다. 학문적으로, 인성적으로 더 커 나가고 싶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보기술이 경영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관해 연구하여, 석.박사과정을 함께 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실무 업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은퇴 후에도, 어렵게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싶다.

특히, 고객빅데이터관리와 정보기술경영혁신이 고객마케팅과 의사결정에 미치는 상호보완 관계 분야에 관심이 많아, 소비자행동론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업경영분석과 품질경영 분야를, 정보기술 마케팅에 접목하여 체계화하고 싶다.

학업에 늦었을 때란 없다. 학업에 대한 진실한 애정만 있으면, 시간과 나이가 더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 새벽. 집어 든 신문에서 무언가 툭 떨어졌다. 철 지난 조금은 촌스러운, 봉투를 열어보니, 한 자 한 자 눌러 쓴 청년의 투박한 손 편지가 나온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신 우유는 제가 맛본 가장 따뜻한 음료였습니다. 다시 힘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을 접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며, 그 속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다. 나는 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자서전을 작성하며, 나 자신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작지만, 진심이 담긴 나의 사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새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튜터링 활동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이 어쩐지 눈에 익었던 것은, 30여 년 전. 장대비가 쏟아지던 새벽길에, 타고 가던 자전거가 미끄러져 상처로 피나는 손이 쓰린 줄도 모른 채, 길가에 널브러진 젖은 신문을 허겁지겁 추슬러 배달했을 때, “젖은 신문을 어떻게 보냐?”라며, 욕과 함께 얼굴에 던져진 찢어진 신문을 들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설움으로, ‘다음 집에서 똑같은 반응이면 어찌나?’ 노심초사할 때, ‘괜찮다’며, ‘청년이 비에 흠뻑 젖고, 고생이 말이 아니네’라며, 건네준 따뜻한 그 한 잔의 우유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해 준 세상에서 가장 큰 응원이었음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된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하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래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다짐해 본다.





새로운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나의 "LiFE"

LiFE 사업 학습수기



2019년 어느 날 오후 아내와 둘이서 집 근처 가까운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집사람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다. 평소에 그런 의지를 내비치곤 했지만 어느 때 보다 진지한 아내의 말에 문득 일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지인의 말이 떠올랐고 전국에 몇 군데 없어서 전북에는 없고 전남 조선대학교에 있다고 말한 게 생각이 났다.



조주사 실습

간절하다는 아내의 말에 조선대학교를 검색해 알아보던 중 우연히 우리 지역 전주대학교가 평생 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다. 이후 전주대학교에 문의를 통해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너무나 간절했던 아내는 너무나 기뻐했고 이 기회에 나와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했다.

아내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나였지만, 여자 나이 40에 혼자된 몸으로 6남매를 키우셨던 어머니께서 형편이 어려워 보내지 못한 형과 누나들을 대신해 꼭 나만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쓰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의 이기적인 개통철학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을 꺾었던 그 순간이 생각났다. “언젠가는 대학교 졸업장을 꼭 어머니 품에 안겨 드려야지” 라는 예전 내 안의 다짐이 스쳐가면서 최종 나의 결정도 이루어졌다. 아내는 창업경영금융학과, 나는 농식품경영학과에 지원해 합격했다.



학과 Together 프로그램

그렇게 시작한 나의 대학 생활. 9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나름 지역사회에서 주된 활동을 하던 나로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나름 명철했던 두뇌라 자부하며 주산 3단의 스펙을 가진 나의 암기력은 뛰어난 수리력을 지녔다고 여겼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했던가! 어느새 나의 암기력은

해가 다르게 빛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경험이 잇따르면서, 때론 화가 나기도 하고. 오기를 부려 보지만 결국 인정해야 하는 현실 앞에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마음이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엔 그저 그럭저럭 시간이나 때워 학위나 받자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은 확실한 목표가 되었고 어느덧 나의 비전이 되었다.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거면 최고가 되자”라는 평소 나의 철학 같은 신념은 나의 마음을 달구기 시작했다. 학사에 멈추지 말고 석사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학과장님께 대학원 과정 개설을 상의, 요청했고 나에게 맞는 공부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다.

나는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 5시 이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나는 조용한 아침에 가장 집중이 잘 되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집중력이 높은 새벽 시간을 활용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갔다. 그리고 바쁜 일과에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때론 수강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내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금, 토요일에 수강할 수 있도록 월요일 시작하는 수강 권한을 전 주 금요일부터 수강할 수 있도록 담당 교수님들께 요청을 드려 바꿀 정도로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또한 블렌디드(온+오프라인) 수업에 예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 있었고, 퇴화되어가는 나의 기억력을 극복해 가는 수단으로 결국 반복 학습만이 답이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학과 종강 파티



스마트 팜 현장체험

스스로 요청하며 만들어 가는 자기주도 학습법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현재 4학년이 된 나의 대학 생활을 뒤돌아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울렁증이 느껴지는 영어와 파이썬, 푸드테크, 농업 경영, 스마트팜, 리빙랩퍼실리테이터 등 나의 학문적 전문성과 다양성을 키워준 학과 수업들!

텃밭을 일구어 작물재배학을 배우고 화훼장식, 칵테일과 와인, 커피, 세계전통 음식들을 알아가며 직접 체험해 보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공정무역 1호 인증 와인 상품을 개발한 실무 학습! 캡스톤디자인, 팀 프로젝트,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물론 학교 축제, MT, 학회장으로 단대학생회 활동 등의 폭넓은 전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과정을 우선적으로 참여했다. 2학년때부터는 매주 평일 목요일 저녁시간의 도전과 투자는 나에게 자연 과학계열학위와 인문사회계열학위 등 융합전공(혁신리빙랩)으로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나의 대학 생활은 올해 8월이면 끝이 난다. 조기졸업을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나의 학문적 빈곤을 나는 이곳 전주대학교에서 채웠다. 앞으로 나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비상하는 나의 LiFE를 꿈꾸고 있다.

나는 현재 25살에 시작한 사업을 30년째 하고 있고, 올 8월이면 학사 학위 2개를 취득하는 초과 목표를 달성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석사과정을 통해 학문의 전문성을 더하여 더 큰 꿈을 향해 날갯짓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는 나의 새로운 비전은 미래의 나의 사명이 되었다. 나의 사명은 내가 가졌던 모든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접목하여 꿈을 잃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비상을 꿈꾸는 나와 같은 많은 성인들에게 나의 마지막 열정을 태워 그들이 더 나은 미래와 그들의 삶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나는 오늘도 상상한다, 나의 설레는 미래를~~~~





평생학습의 기회를 잡다

LiFE 사업 학습수기



내 평생 대학의 꿈은 끝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늦깎이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대학로의 가로수 거리를 학부모가 아닌 학생 신분으로 걸어보기도 하고, 학우들과 토론도 즐기며, 때론 과제와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밀려오지만 그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다가온다.

대학에 간다고 하니 격려와 지지자들도 많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다. “늦은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해라”. 처음엔 나도 큰 기대감 없이 지인의 권유로 인한 시작이었다. 그런데 시간을 거듭할수록 대학 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젊은 열정과 에너지가 생겨 좋았던 생각을 한다.

전공과목은 전공과목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만족스럽고 교양과목은 큰 수업료를 주고도 배우지 못할 교수님들의 열정적 삶이 묻어 있다.



2022년 사례관리 교육 참가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며 야간수업에 황금 같은 주말시간까지 할애하면서 하는 대학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나이 지만 어느덧 내 마음은 20대로 돌아가 청춘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라떼라는 단어도 배우고..^^ MZ세대들의 신조어도 재밌다.



2023년 실버케어복지학과 현장실습

대학 생활을 하며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은 첫째, 대학 생활은 오로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나만의 시간이다. 결혼 후 자녀를 위한 엄마로, 남편을 위한 아내로, 가족을 위한 공동체적 삶으로 25년을 살아왔다. 교양과목 중에서 나를 찾는 행복 레슨이란 과목을 들으며, 다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찾아가고 있다. 사회복지실천

기술론에서 배운 대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행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즐거움, 똑같은 공부를 해도 내 나이 20에 대학에 다녔어도 느낄 수 없는 50대가 되어서야 깨우칠 수 있다. 인생의 새로운 배움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둘째, 대학 생활은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굳어진 삶의 고정관념을 깨우는 시간이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아집에 사로잡혀 젊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대학 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 부모가 인생의 선배일 수는 있으나, 새로운 변화의 지식은 자녀들에게, 젊은 친구들에게 배운다. 이제는 자녀들이 나의 대학 선배가 되어 여러 가지 조언과 가르침을 받아 행복하다.

셋째, 대학 생활은 자존감을 높이고,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삶이다. 고등학교 시절 미술에 재능이 있어 대회도 나가고, 미대를 가고 싶은 꿈이 있었으나 그때 그 시절, 형제 많은 가난한 집안의 딸은 대학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취업을 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늘



2022년 실버케어복지학과 학술대회

마음 한편에 이루지 못한 대학 생활, 그로 인한 열등감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 나도 당당한 대학 생활을 즐기며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특히 미래융합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를 개최해 주신다. MT나 체육대회, 학술대회 등 행사를 참여하며 소속감을 느끼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매 순간 느낀다.

넷째, 대학 캠퍼스의 매력에 빠지다. 미래융합대학 행사와 제주대학교 축제, 미래융합대학 잡 페스티벌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게시판에 붙어있는 벽보들, 여러 가지 대학 생활의 지침이나, 학생들의 알림 정보를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다. 젊음이 느껴지는 문구들. 봄이 되면 캠퍼스 안에 벚꽃길은 환상적으로 예쁘다. 수업 전 일찍 가는 날 학교 옥상에 올라가 보면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진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요즘 캠퍼스 잔디에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나의 대학 친구들과 수다도 맘껏 떨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해 본다.

다섯째, 쉽지만은 않은 대학 공부. 그래서 더 만족스러운 평생학습이다. 미용대 수업은 그럭저럭 재미있게 공부하는 편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에 교수님들도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 가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학생들과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하고, 평가도 같은 수준으로 반기에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그 정도 스트레스도 없는 대학 생활은 양꼬 없는 찐빵 같지 않을까? 20대로 돌아가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대학 공부지 하는 마음으로 이 또한 즐기고 있다. 대학 공부 이외에 특히 일반 대학생들이면 쉽게 듣지 못하는 다양한 비교과 과정과 특강을 많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정말 만족스럽다.

끝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늦었다 생각한 그때가 최적의 시기였다

LiFE 사업 학습수기



2020학번 동기들과 생일파티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던 딸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덩달아 대학에 발을 디뎠다. 한문 공부하며 목말라하던 인문학 강의도 듣고 다양한 의견들과 토론도 해보는 멋진 꿈을 꾸며 용기 내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에 입학원서를 접수했고 다행히도 합격하였다.

한문 공부를 하며 옛 성인들의 남겨주신 지혜의 끝자락을 조금 스쳤을 뿐인데도 ‘왜 진작 접하지 못 했을까?’하고 후회하면서도 지금이라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이런 생각에 좀 더 깊이 있게 ‘인문학’을 공부하고 싶었다. 그때 본인의 눈에 들어온 곳이 바로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이다. 나이 들어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건 아닌가?’하고 두려움도 많았다. 용기도 필요했으며 시간도 필요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늦었지만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용기 내어 대학 입학에 결정하게 되었다. 입학하고 나니 함께하는 학우들 또한 나와 다르지 않았다. 부푼 꿈을 안고 고된 여정을 시작한 중년들! 반갑기도 하고 다 헤아릴 수는 없으나 그 마음 알 것만 같은. 늦은 만큼 열정으로 함께하는 동기들이었다. 맞다. 가장 최적의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우리들은 행운아이며 영웅들이었다. 큰 전환점이 되었고, 기회가 되었다. 한창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되었던 것 같다.



미래융합대학 한마음 단합대회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을 되돌아 보았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찬찬히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무엇인가 아쉬움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붙었다. 재미있는 일은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 했던 공부는 안갯속 평화처럼 느껴졌다. 길은 있는데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가 내 차선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희미

하게 느껴졌다. 답답한 노릇이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일자리도 바꾸었는데 정작 공부한 것이 기억나질 않았다. 하여 그동안의 공부를 되새기고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생각하고 사회복지사1급에 용기 내어 도전해 보았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았다. 공부하며 정리하다 보니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까지 머릿속에 차근차근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시험 준비보다는 잊어버린 기억 되찾기였다. 국가고시 과목 선정의 이유를 어렵듯이 알 것만 같았다. 일하며 하는 공부가 힘이 들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니 학교에서 배운 공부를 스스로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에 합격·불합격을 떠나 마음이 뿌듯했다. 사회복지를 공부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학의 복수전공제도 덕에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관광융복합을 부전공으로 하여 두 개의 학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미래융합대학 내 다양한 비학위, 비교과 과정, 체육대회, 현장실습, 학술대회 등을 참여하며 만학도임을 잊어버리고 진정한 캠퍼스 대학 생활을 누렸다.

졸업을 했다.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의 입학과 졸업으로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견해(見解)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미래융합대학 한마음 단합대회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페르소나가 아닌 자아로 세상에 나설 용기가 생겼다. 나에게 있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입학은 나이 들어 시작한 공부이지만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학사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과정에 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박사과정까지 도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늦었다 생각한 그때가 최적의 시기이니까. 앞으로의 도전이 미래의 본인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된다.

그동안 가르침을 주신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의 남진열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졸업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더불어 같은 평생학습의 길을 걷고 계시는 모든 학우들의 용기와 노력에 응원의 합성을 보낸다.



2023학년 2월 실버케어복지학과 학위수여식



51세 대학생이 꿈꾸는 축산의 삶

LiFE 사업 학습수기



51세 대학생이 꿈꾸는 축산의 삶



한우농가 공동퇴비사 활동

2020년도 계획을 세워 2022년형 마을형 공동 퇴비사를 지었으나 현실적인 문제 (주민 간의 갈등으로)에 부딪히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와중에 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에서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회적기업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로서 농사일과 회사일 모든 일을 헤쳐 나가야 하는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큰 결심이었습니다. 남편의

응원과 공부하는 엄마를 믿어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사회적기업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교과목은 저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전 송아지 두 마리로 시작한 축산인의 아내인 저는 행복한 농촌생활을 꿈꾸었지만, 만삭인 몸으로 농촌에 적응해 나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아버님 축사에서 송아지를 키울 때는 귀엽네~ 이정도... 그리고 현실은 하루하루 소똥을 치우는 일도 여자로서 너무 힘든 하루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농사일을 도우며 학교 텃밭선생님 (충남 교육청)을 9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원에치료사, 심폐소생술, 심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따며 농촌체험농장을 운영하며 농촌과 아이들을 잇는 체험 위주의 수업을 지향하며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 활동을 할수록 배움에 대한 갈망이 더 컸기에 대학 진학의 꿈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텃밭선생님 활동



어르신 돌봄교실 활동

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시작한 일은 '어르신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행복한 삶을 꿈꾸기 위한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누구나 농사일로 농촌에서 부농을 꿈꾸지만 현실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고 한우를 키우고 그 축분(분뇨)을 다시 논, 밭으로 환원(순환 농업)하는 남편의 일을 보며 축분(분뇨)를 부숙 시켜 실천하는 일들이 농사에서는 중요함을 깨달음을 주었지요. 실현 가능한 일들은 농업 기술센터를 다니며 물어보고 교육을 통해 터득해

나갔으며 미생물(축산용 EM, 생균제, 광합성균)을 받아와 활용해나가고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일, 동물을 키우는 일, 사람과 어울리는 일, 아이들을 농촌에서 키우는 일 등등 키운다는 의미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사계절을 다 겪으며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먹거리의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과 느껴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며 농촌은 많은 경험들이 쌓여야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농촌과 관련된 수업이 즐거운 일 중 하나이며 지역 내 많은 아이들이 농촌체험을 오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만족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하는 돌봄교실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ESG 아카데미



한우농가방문 송아지방한복 전달 활동



한우농가방문 송아지방한복 제작 활동

대학생으로서의 삶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더 느끼게 해주고 있으며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찾고자 교수님과의 상담 및 토론은 즐거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과 송아지 사양관리 중 송아지 옷을 만들어 보겠다는 나의 의견을 듣고 버려지는 폐자재(소방관 옷이나 군부대 옷)를 활용한 송아지 옷을 만들어 보며 하나하나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만든 옷을 송아지에게 입혀줄 때 우리 아이들 꼬까옷 입혀주는 느낌이 들었지요. 지난 겨울 축산농가의 여성분들과 송아지 옷 만드는 동아리도 만들어 꾸준히 농가들과 교류 및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며 책상에서 하는 교육보다 현장의 경험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열정을 갖고 노력해 나가는 일은 제 몫이라 생각합니다.

현장 교육과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시는 대학의 평생교육은 저한테는 현재 고맙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아직 2학년으로써 졸업까지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지만 작은 실천의 꿈을 잘 헤쳐 나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을 통한 성인 학습자로서 흥성의 장곡에서 소소한 일상속 자연의 한가로움, 사계절의 즐거움, 한우부부(3대 소띠일가-시어머니, 소띠인 우리부부, 소띠인 아들)의 축산 실천의 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푸른구름'으로 나의 청춘을 나누다

LiFE 사업 학습수기



학업을 오랫동안 멈추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분주히 생활하다가 마주한 나의 대학 생활은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학업을 하며 무척 나를 아껴주셨던 지도 교수님은 대학원 정보와 전공과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설계를 해주셨으며, 그 과정을 함께 했던 동기들은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결단과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의 유년시절 가정폭력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처와 낮은 자존감으로 울고 있는 '내면의 자아'였다. 청소년상담교육학과에서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통해 나의 내면의 상처를 깊이 치유할 수 있었으며, 나의 어린 시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와 앞으로의 내가 해야 할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지역의 발달장애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폭력예방 교육을 자원봉사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평생 교육사 실습을 마치고 전문적으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꾸준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추천으로 '수상'과 연결되어 '충청남도의회 도의장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헬로 이슈토크] 평생교육...청운대 사회서비스대학

조회수 270회 · 3개월 전 ...더보기

성인학습 사례인터뷰 (충남방송, 헬로 이슈토크)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자원 봉사가 도서관 관장이라는 제2의 직업을 갖게 했으며, 충청남도의회 수상, 지역에서의 관심과 사랑으로 헬로우비전충남tv 성인학습 대표사례로 인터뷰를 하는 영광을 갖게 하였다.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새로운 도전과 전문적인 학문의 길을 넓혀가고 있다. 예전에 나는 목적이 없이 마냥 바쁘기만 했다면, 이제는 나의 자아를 찾고 타인과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나침판을 발견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이다. 나는 졸업 이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이모작을 통해 나의 멋진 직업과 전문성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있다.



포럼 성인학습교육 사례발표
(충청남도 교육위원장과 함께)

예비상담사로서 다양한 상담이론의 구조화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추천으로 보령시 관내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문제행동 당사자인 학생과 상담할 수 있었던 경험이 경력 개발에 가장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한다. 상담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 경험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취·창업 특화 과정 프로그램 '장애인상담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주셔서 좀 더 전문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경력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었다. 지도교수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에게 필요한 실습을 졸업 전에 이미 해볼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수업(캡스톤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의 활동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현재 졸업 후 청소년지도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 2급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졸업사진(지도교수님과 함께)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은 말 그대로 靑雲(푸른 구름)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꿈을 잃고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 하늘 높이 푸른 구름을 볼 때면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된다. 나는 그런 청운이라는 이름 자체가 좋을뿐더러 청운은 꿈을 연상케 하고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행을 떠나는 푸른 구름과 같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LiFE란?

LiFE 사업 학습수기



올해 한국 나이로 46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군대 2년, 중국 유학 1년을 빼면 24년 동안 취업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취업을 선택하여 직장 생활을 하였으나, 동창들 대부분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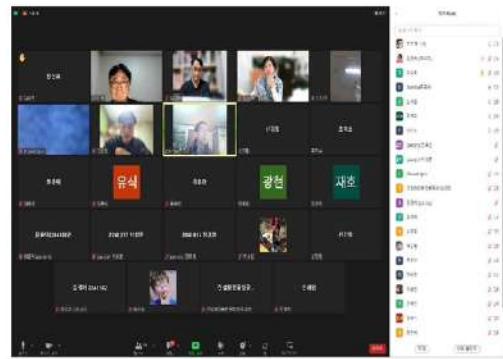
진학 한 친구들을 만나면 대학 캠퍼스의 낭만을 술값으로 지불하고 간접 경험을 하였다. 친구들의 대학 생활을 듣다 보니 나도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1년 후 전문대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매일 술 마시고 오전 수업을 수강하지 못해 학기 초 학점이 엉망이 되어 탈출구로 군 입대를 택하였으나 영장 없이는 인정이 되지 않아 너무 쉽게 자퇴를 하고 만다. 그 당시 나에게 대학이란?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 듣던 캠퍼스의 낭만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기주도학습코칭 학습사례발표

다시 취업하여 20대를 보내게 된다. 친구들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같이하게 되었다. 2~3년 흘러 친구들은 연봉 상승과 승진을 하게 되었다. 승진한 친구를 보며 부러워했다. 그때 승진에 관심이 생겨 회사에 문의해 보았다. 나는 언제쯤 승진할 수 있는지. 회사의 대답은 '대학 졸업하고 2년 후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이후에' 승진을 한다는 것이었다.

아~~대졸과 고졸의 차이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대학은 승진과 연봉에 관련이 많았다. 나이도 벌써 30대 후반,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이직하여 자격증 취득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여전히 대졸자와 경력이 쌓이는 속도가 달랐다.



실시간 온라인 자기주도학습코칭

어느 날 회사 전무님께서 대학에 관심이 있느냐며 물어왔다. 당연히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회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환경융합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40대 중반 나이에 큰 도전을 하게 되었다. 늦은 나이 직장과 병행하여 대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대학은 연봉과 승진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도전했다.

벌써 3학년 1학기 나에게 대학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직장 생활은 경험을 통해 일을 습득하지만 대학은 이해를 통해 일을 해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현장에서 도면에 펌프 용량이나 배관의 위치, 길이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교양과목들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좀 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96년에 미래가 2023년에는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일만 하고 있었다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상황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대학 입학 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상담 및 성격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대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엑셀 및 한글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있으며 오디오북을 통해 책을 듣고 있다.



2022년 재학생대상 미래융합대학 한마음 컨퍼런스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은 평생 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변화해 가는 미래를 알아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대학을 이성과의 낭만과 승진 도구로만 생각했던 나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대학은 직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한 나의 사고를 넓혀주고, 서로 다른 분야 동기들과 소통을 통해 보다 넓고 깊은 해안을 배울 수 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2022년 재학생대상 미래융합대학 한마음 컨퍼런스







나도 대학생이다!!

LiFE 사업 학습수기



저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복지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63세 김정은입니다. 2021년 1월 14일 면접 시험을 본게 엿그제 같은데 벌써 3학년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과정을 소개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45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코칭 학습사례 공유 및 동료 코칭

지인분께서 이 시스템은 바로 저 같은 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학교에서 잘 이끌어 줄 테니 아무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을

잡는 그 무엇을 극복하고 꼭 학사모를 쓰고 대학 졸업장을 가슴에 안는 꿈이,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중지손가락을 잃고, 폐암수술, 교통사고 후유로 온 이석증, 영어도 안되고, 컴퓨터 키보드도 안되고, 이리저리 안되는 많은 변명은 100세 시대 남은 인생을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생학습자 과정에 이정표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입학하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과, 비교과 과정을 따라 하며, 읽고 쓰고 말하기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히 준비했습니다.

사고로 잃은 왼손 중지엔 인공 중지를 만들어 끼우고 타자 연습을 부지런히 하며 노력한 결과 문서작성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새벽과 밤에 틈만 나면 다시 듣기로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이용해 공부하니 성적은 결코 패신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코칭



미래융합대학 한마음 컨퍼런스

정보 격차의 심각한 불편을 보면서 이러한 훌륭한 학습제도가 없었다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습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비대면 줌수업과 동영상 강의를 듣고 부족하면 다시 보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복습이 가능하므로 주위에 권하고 싶습니다.

저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때를 놓쳤지만 배움을 갈망하는 분들께 평생학습자 배움제도를 홍보하고 추천하는 전도사가 되겠으며, 사회복지사가 되어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이 좋은 제도를 통해 배운 것을 반드시 사회에 봉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사는데 보태겠습니다.

학과 대표가 되어 당당하게 발표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게 이끌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저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들께 알리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체적 사고와 아이디어를 위한 큐브'란 교양과목 강의를 통해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하며 육면체 큐브에는 각각 다른 나타난 현상, 객관적 정보, 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씨앗 등 대학이 추구하는 사회에 나타난 문제를 학문적으로 풀어 해결하는 능력을 배웁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공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성격형성 이론에는 가장 중요한 정신역동은 인간의 성격 형성은 태어날부터 매우 중요함과 자라나는 여러 환경들이 중요한 요소임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를 통해 대학생이 된 공부의 희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좀 더 심도있게 찾아 해결의 기반을 다지는 학문적 토대도 쌓았습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영국 은퇴한 목수가 겪는



전공수업



삶의 발자취에 의미를 더하기(+)

LiFE 사업 학습수기



승마 수업 활동

62년생 저는 60대의 어엿한 한라대학교 학생입니다.

삶의 굴곡이 나이만큼 많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난했고, 일을 해야 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던 저에게 학교는 쉽게 배움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0대가 되어도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배움에 대한 목마름으로 끈을 놓지 못하는 내 자신이었습니다.

‘만학도’ 누군가는 그 나이에 배워서 어느 곳에 쓰겠냐는 참언과 더불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50대 중반의 늦은 나이에 원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 후 꿈에 그리던 대학교 문턱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감회는 지금도 눈을 감으면 생경합니다.

방송·통신 고등학교 졸업식 날 교문 입구에서 한라대학교 입학 지원 홍보전단지를 건네받은 것이 미래융합학부 학생으로 4년을 지낼 수 있게 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대학교 생활에 나이와 신체, 살아온 배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고 학교생활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미래융합학부 1기 입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품고 정진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교과목 중에서 골프, 라인댄스, 서핑, 수상스키 등 현장 실습을 통해 진행되는 학습은 이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보람과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의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자격증 취득(웃음 지도자, 레크레이션 지도자, 수상스키)의 기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동계 스포츠 컬링 수업 활동

또한, 가장 큰 성과라면 원주시 세계댄싱카니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었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한라대학교 학생의 일원으로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고,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늘그막에 대학에 와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시간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입학할 때는 그저 무사히 졸업하는 것만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라대에 입학하고 학생으로서 다분히 노력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으로 성취감을 얻으며 발전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댄싱카니발 대회에서의 수상은 단순히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력하고 열심히 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도, 배움이 부족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댄싱카니발 최우수상 수상 활동

1학년 새내기 때는 학교에 적응하여 경험을 쌓고 성적을 내는 것에 집중했다면 4학년이 된 지금은 미래융합학부에서의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직접 해보고자 하는 포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회 구조적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구성원의 연령은 높아졌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쓰일 수 있는 곳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



동계 스포츠 스키 수업 활동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평생 교육 지원사업이 성인 학습자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회를 제공한다면 고령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또 다른 역할을 해내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문화에 관한 관심도 높이고
자원을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나누는

중개자 역할을 나와 같은 성인 학습자들이 이행한다면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큰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저는 한라대학교 미래융합학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인생에 있어 긍정적 피드백과 건강한 자극제를 받았습니다.

현재도 여주시 해외 자원봉사 단장과 주민자치 협의회 회장을 겸임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졸업해서도 한라대학교를 빛낼 수 있는 인재로서 꾸준히 발전하고 봉사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60대 만학도의 건조했던 삶에 의미를 더해준 한라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님들과 학우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계 스포츠 수상스키 수업 활동



하계 스포츠 서핑 수업 활동



활기찬 도전 새로운 시작

LiFE 사업 학습수기



대학의 필요성

나는 특성화고를 졸업한 지역 인재로 20살에 공무원이 되었고, 이제 더 이상의 공부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년간 허송세월을 보내던 나에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괜찮겠어?”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답은 당연히 아니었고 대학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1년 입학생으로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코로나 완화로 대면 수업 시작과 함께 나의 대학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공부 비법 공유

고등학생 시절 공무원 공부 이후로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공부 방법을 터득해 결국 좋은 성적을 얻었던 경험이 있어서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학우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제가 공부 못했던 시절이 생각나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성공학습법 경진대회

그렇게 공부할 의지는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고 느낄 무렵 교내 대회인 “성공 학습법 경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나의 공부 비법을 성공적으로 알려주어 총장상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 모교에 가서 2년 연속 선배 특강도 진행하게 되면서 저의 공부 비법을 공유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Follower에서 Leader로

수동적인 학생이던 제가 바뀌게 된 계기는 학업을 도와 주는 시간이 길어지니 학우들의 추천을 받아 과대표가 된 것이었습니다. 학년을 이끌어야 하고, 대다수가 나보다 연장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이셔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과대표는 뭐 하는 사람일까? 고민 끝에 결론은 회사로 치면 중간관리자 역할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습자를 연결해 주고 부드럽게 하는 윤활제 역할이었습니다. 선배 후배 동급생들과 교수님까지 360도의 의사소통이 필요했고, 체육대회 개최와 MT를 가는 등 그 과정에서 소통 능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선배특강

그러던 중 교육기관에서 기계설비 관리와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저에게 원장님의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교학과 직원이 2달간 병가를 써야 하는데 기존 업무를 맡으면서 교학과 업무 병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병행 업무는 교육과정 계획 수립과 교육생의 인솔이었지만 인수인계도 잘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어 매일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계획 수립은 처음이어서 힘들었지만, 교육생 인솔은 과대표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잘 수행해냈고, 그 결과 근무 성적 평가와 성과급 최우수를 받고 제주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비롯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계 스포츠 수업 겸 MT

학생으로의 성취

공부를 알려주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아성찰 시간도 늘어만 갔습니다.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교내 프로그램인 사제동행을 신청하였고 교수님께 모르는 부분을 여쭙보며 지식을 학우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우들에게 나눴던 결과 학점 4.5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동기동기 프로그램에서 멘토를 맡아 신입생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남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도움을 받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도 도움을 줄 기회가 생기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공을 선택한 이유

가장 중요한 설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입학 전 기계가 움직이면 그건 로봇이다. 로봇에 대해 공부하는 게 목표여서 기계와 스포츠를 전공하고 싶었지만, 사전에 학교에 문의한 결과 스포츠과 입학 후 기계과 복수 전공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능해 스포츠과에 입학해 기계도 전공하게 되었고 야간대 첫 복수 전공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천재일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군대를 장교로 가며 3년간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지원했습니다.

서류 접수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대다수가 과학 기술특성화 대학교(KAIST, POSTECH 등) 학생 이었고, 학교명, 성적 증명서, 전공 등까지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붙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컸습니다.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지원했고



과학기술전문사관 면접

그동안 성적을 잘 맞은 탓인지, 각종 상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주었는지(구청장상, 총장상) 서류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2차 면접 안내문을 보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4번의 면접이 진행되고 토론, 개별면접 등 실제 면접 시간만 2시간이었습니다. 방법을 찾던 중 학교 취업지원센터에 연락하여 면접 준비를 부탁했고 흔쾌히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주간 틈틈이 준비하였고 면접에서도 후회 없었지만, 역량이 부족했던 탓인지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이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쟁쟁한 지원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봤고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 인간관계, 소통 능력 등을 배운 결과

1. 성공 학습법 경진대회에서 총장상 수여
2. 모교에서 2년 연속 선배 특강
3. 근무 성적 평가와 성과급 최우수 등급을 받고 제주도 포상
4. 사제동행과 동기 등 기 참여와 4.5점의 GPA로 전액 장학금
5. 과학기술 전문사관 지원

위와 같은 성과가 있었고 더 나아가 공무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석사, 박사까지 끝낸 후 정부 출연연구소, 민간경력 채용(5급)에 도전하여 끊임없이 발전할 생각입니다.

2년간의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고, 모든 게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 없었다면 이뤄낼 수도 도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전을 망설이시는 만학도, 취업을 먼저 하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도전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파이팅!

정지선에 있던 나의 삶에 출발신호를 준 LiFE

LiFE 사업 학습수기



지역아동센터 실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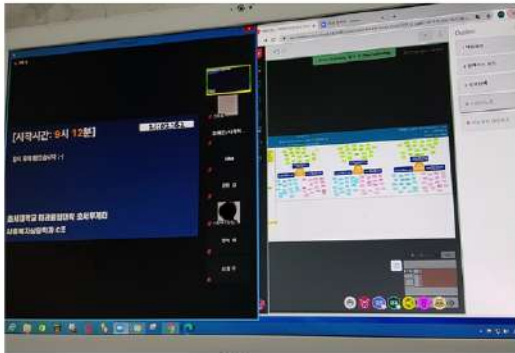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도와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2020년 대학을 입학하기 전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극도의 우울 증세가 있었던 저는 가족에게도 현재 상태를 알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해 볼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이제 와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등록하게 되었고, 가족들은 저의 도전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재직자로 이 사업에 참여하여 힘들 때는 이직을 해서라도 일을 계속해야 했고, 국가장학금으로 학비를 지원받았기에 그 감사함에 학교 공부도 게을리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전 우울한 생각을 할 틈이 없어졌고, 저의 생각과 삶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많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와 활동은 모두 참여했고, 매 학기 시험과 과제로 주말도 없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었지만 학년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여가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년간의 학교생활 동안 교수님과 조교님들은 불안해하는 저에게 늘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주며 저를 성장하게 도왔습니다. “저는 학교에 오면



후배들과 함께하는 ZOOM미팅 활동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멈춰 있는 철마의 바람처럼 달리고 싶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이전에는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4학년이 된 지금은 오히려 달리고 싶은 방향이 많아서 어디로 달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살에 대학교에 입학했다면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을 단지 학습으로만 생각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그 과목들이 쌓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인으로 성장함에 자존감이 높아졌으며, 교양을 들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의 폭이 넓어져 저를 더 단단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30대 후반이 된 현재, 비로소 지금에서야 내가 어떠한 가치에 중심을 두고 어떠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성공하고 싶었고 가진 것이 많다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진정한 성공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 미시적인 것에서 거시적인 것까지 잉크가 번지듯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변 환경으로부터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게 도와주는 어른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역, 국가에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단과대학 YouTube 홍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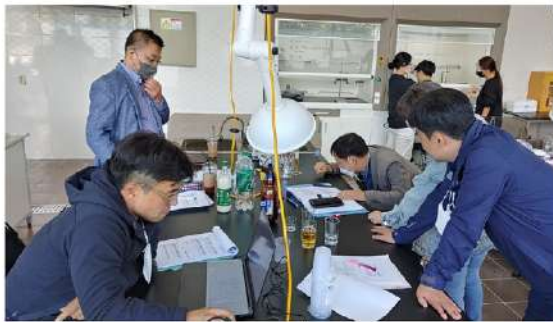
저는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대학을 포기했었고 경제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4년을 마쳐가는 지금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가치를 찾기 위한 열정이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멈춰 있던 제 삶은 LiFE 사업이 준 파란 신호를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대학! LiFE는 배움, 그 이상입니다.”



나의 삶을 변하게 해 준 대학생활

LiFE 사업 학습수기



CSR 실험 (화학물질 테스트)



CSR실험(방호복_공기호흡기 착용)

2명의 고등학교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취업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안전부서에서 25년간 안전, 소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회사 내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도 직장 업무 경력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직장인이 주말에 대학 수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직장관 연관 있는 '안전공학과'에 지원하여 배움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공부를 하려니 이해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직장 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에 대해 내용만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었다면 학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조항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역사와 배경을

학습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직장 내에서 용이하고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비치된 MSDS를 보고 물질의 성분을 알고 위험성을 파악했다면, 학교에서는 해당 물질을 보고 성분을 분석하고 취급해 보며 물질의 위험성을 파악하니 물질에 대한



2학년 성적 우수 시상

정보를 기억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산업독성학, 시스템 안전공학 등 안전공학에 대한 전문 과목을 배우며 익힐 수 있었으며,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미래융합대학 교양과목을 들으며 나를 다시 한번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으로 학비는 정규 학생보다 개인 부담이 적지만 고등학교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학교 다니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두 아이의 아빠로써 ‘아빠도 늦은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회사에 다녀와서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학습을 이어 갔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책상에 앉아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당연히 저녁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귀가하면 공부하는 분위기를 가지면서 아이들 성적은 조금씩이나마 향상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다른 직장, 회사에 다니는 친구, 동기를 사귄 수 있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매일 회사, 집만 반복하던 우물 안 개구리인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학교에 등교하여 다른 직장, 다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1학기를 마치게 되면, 학점을 모두 이수 후 조기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도 유익하게 생활하고 배움으로써 나의 발전과 사교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전문대학교

군장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서정대학교
성운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LiFE 사업 학습수기



꿈의 시작

2021년 코로나 시절 나는 누구인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관계를 선호하며, 무의식 속 자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만남이 단절되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만남을 정리하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로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며, 감정이 치유되고 있을 때 언니와 연락하였습니다.

“안녕 언니 어떻게 지내”

“나 군장대학교 다녀”, “어디요”, “군장대학교 너무 재미있다”

그 말에 가슴이 뛰며 잊고 지냈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자세한 입학 요강, 수업시간 등 알아보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생활의 시작

개강 1주일 앞둔 2/23 단체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실버복지상담과 신입생 개강 전 상견례 안내》

상견례 번개 모임을 위해 교수님께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 교수님은 신입생 명찰을 주시면서 이름을 익히기 위해 3월 말까지 착용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인사와 함께 과대표, 부과대표, 봉사부 단장이 선임되고, 식사 후 찻집으로 이동하여 간략한 OT를 경청하였습니다. 마스크 위 눈동자들이 반짝였습니다. 3/2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났을 때 명찰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강의실에 선배님들의 환영 인사와 풍선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학과인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수업의 행운을 안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맞춤식 교육 - 배움의 기쁨

학습에 대한 불안이 많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학우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러나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주시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 자기계발 및 자기경영 방법 (태도 바꾸고, 정보를 받아들이기, 건강 실천)

* 스스로 존재치 않고 사회적 환경으로 존재하는 인간

(말부터 존중, 차별하지 않기, 가치 지향적인 삶)

*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심리적인 건강과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유발함으로 삶과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향상)

* 복지정책 내 상담의 중요성 - 스스로가 상담을 배워가면서 치유해가는 것이 상담 공부. 공감 능력을 키우고, 적극적으로 관찰하자.

*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전북지부

모든 과목이 저와 가정, 사회, 직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수업내용이 알차고 좋아 강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웰니스평생봉사단 - 봉사 마음을 아세요



운영 회의 및 활동



2023년 4월 9일 새만금 마라톤 봉사활동

“팔로워/서벤트십을 통한 평생직업교육대학 군장대학교 웰니스평생봉사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17주년이 된 웰니스평생봉사단에 가입.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자원봉사자로 25분 학우들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시 주차장에 집합 25KM 반환점 코스에서 선수에게 음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쌀쌀한 새벽에 한번 놀랐고 수백 명의 봉사자를 보며 두 번 놀랐습니다. 누구도 쩡그림 없는 모습으로 쌀쌀한 아침, 선수를 격려하며 함께하는 봉사단 마음에 세상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2시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지침보다 뿌듯한 감동적 기쁨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4/19 군산시 도서관 행사, 5/20 어린이 숲속걷기 봉사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봉사의 마음을 아세요”하고 물어본다면 “한번 맛보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봉사자의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터디그룹 - 복지상담이어로

평생교육경영론 수업 중에 “인생 제3막을 위해 사고와 태도를 바꿔라”라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공부란 이기는 공부였습니다. 친구나 짝꿍을 이겨 1등이 되는 게임 같은 것이라면, 현재 공부는 다르다는 말씀에 매료되어 스터디를 하게 되었어요. 지식과 공부방법, 검색 방법 등을 공유하고 나아가 학우들과도 공유하여 23학번 학우 모두가 복지상담이어로가 될 수 있도록 봉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룹입니다.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실버복지상담과 학업을 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팔로워십 관계가 있는지, 과거의 브랜드에 연연해하며(학력, 경력, 지연 등) 본인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저를 발견

하였습니다. 가정, 직장,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변화하기로 생각하며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ollowership- 공동체 의식

- 1)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위대함 찾기 2)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마음
- 3) 분명한 대안을 겸손하게 4) 조직 목표와 내 목표를 최대한 일치시키기

2. Servantship - 섬김 의식 (능동적 경청과 공감)

- 1) 집중하고 대화에 참여하기 2)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확인하기
- 3) 대화에 동참하기 4) 상대의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기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사고와 태도를 바꾸고 파트너십 관계를 돈독히 하겠습니다. 섬김 의식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동까지 함께 생각하는 통섭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습니다.



핵심역량 강화 프로그램 / 비전 나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이 있습니다. 올바른 봉사의 시작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섬기기 위해 능력을 키우며, 클라이언트를 사랑하는 인성이 먼저 실천되어야 합니다. 눈물 없이는 봉사를 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클라이언트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모두 죽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해답을 회피하게나마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자”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함께하는 군장대학교 실버복지상담과의 지도교수님과 35명 학우분들과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를 지원해 주시는 LiFE 사업단에 진심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날개를 펴다

LiFE 사업 학습수기



기업체 현장견학

봄꽃의 향연을 만끽할 약간의 여유도 없이 어느새 창밖의 나무들은 녹음이 짙어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다. 찰나의 순간...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론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치열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다. 지금에 와서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 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난 백부님 댁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대학교에 진학도 했다. 1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의 중요성보다는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서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병역 특례가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1년 11월 나는 약 18년이라는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가슴 벅찬 성과를 이루었다. 바로 '국가 품질명장'에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국가품질명장은 산업현장의 근로자 중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품질 향상을 위하여 분임조 활동, 제안 활동 등 품질경영 활동에 헌신해 온 모범근로자를 선정하여 대통령 명의로 포상하는 제도이다. 품질명장에 선정된 이후의 회사에서의 나의 업무는 180도로

바뀌었다. 기존엔 현장에서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했지만, 지금은 전사 현장혁신활동 리더로서 현장 사원의 혁신활동 길잡이로 활동하고 있다. 품질명장이 되기 전까지 다시 학생이 될 거란 생각은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동기부여’란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될 줄이야. 학교에 다니는 이 순간 조금씩 느끼고 배우고 있는 지금이 아닌가 싶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동북아의 중심! 서해안의 랜드마크! 군산에 있는 군장대학교 융합기계 시스템과이다. 정신없이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시작되어 4월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눈이 부시게 빛나는 석양을 쫓아 학교에 다니는 매력에 여전히 흠뻑 빠져 있다. 어둠이 시작되면 일과가 마무리되지만 나와 동기님들은 학교를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체득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유쾌한 일이 또 있을까? 나와 동기님들은 ‘융합’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코딩 실무, 정밀측정, 기계 공작법, 전자동차 등의 다양한 과목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새롭게 배우고 있다. 학과 교수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우리 성인학습자들을 수시로 챙겨주시니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나와 동기님들은 어려움 없이 졸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수업 외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MBTI’와 유사한 형태의 ‘MLST’학습전략검사, ‘명사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비학위 과정 지원을 통한 드론 조종, 지게차 운전, 굴삭기 운전 등의 각종 자격증 취득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도 1학년 때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취득한 자격증 중 한 가지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자격수당에 해당하는 자격증이어서 자격수당까지 추가로 받고 있으니 일거양득이 따로 없다. 올해에도 기회가 된다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 시간을 할애하여 굴삭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기업체 현장견학

이런 좋은 제도와 LIFE 사업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더 많은 대학이 선정되어 배움에 굶주린,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예비 성인학습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늦지 않았다고 지금 시작하면 된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자동차 검사 실습



기계가공실습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을 것처럼 살아라

LiFE 사업 학습수기



프롤로그



학우들과 황령산 전망대 활동모습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존경했던 추리 소설 작가 레이먼드 찬들러의 작품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치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소. 그러나 매너 있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소.” 여기 치열했던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 매너와 신사다움을 갖춘 50, 60대 학우들이 배움의 열정으로

모인 동의과학대학교 헬스융합복지과와 저의 대학 생활을 소개합니다.

학습동기

저는 30년 전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출산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되었습니다. 아들 두 명을 키우면서 주부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주변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 스스로 많이 위축됨을 느꼈습니다. 자신감 상실로 무력감을 느끼다가 올해 50살이 되면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와 남편 우선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 시간을 써보자, 그리고 나의 직업을 가지기 위해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친구의 소개로 동의과학대학교 헬스융합복지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에서 만학도 장학금 지원도 해주며, 만학도를 배려한 수업시간표, 취업과 연계한 여러 특강 프로그램 등 설명을 듣고 저의 상황에 딱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였습니다.



수업 끝나고 교수님과 함께 한 모습

학교 수업과 변화된 나의 생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처음 등교한 날 학우들과의 첫 만남이 생생합니다. 저희 반은 40대, 50대, 60대로 구성되어 있고 절반 가까이 60대 분이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 속에 활기에 찬 수업 분위기, 열정적인 질문과 답변에 나이를 잊게 만드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의 자랑인 스포츠센터에서 교양과목으로 수영을 배우게 되어 건강도 함께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체의 구조와 기능이라는 과목에선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의 기능과 질병의 관계, 나아가 내 몸에 대해 잘 알고 건강을 지키자는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융합복지과 담당 교수님 과목인 정신건강론이 저에겐 가장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가 독서로 그중 추리소설을 가장 좋아합니다. 책 속에 자주 나오는 현대사회의 여러 정신병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다중인격장애, 해리성 기억상실 등을 학문적으로 배우고 접할 수 있어서 수업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추리소설 온라인 밴드의 공동 리더를 맡고 있는데 독서후기와 독서토론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토론한 여러 사회문제와 수업 시간에 배운



장애인에 대한 시청각교육 활동모습



학우들의 생일축하 활동모습

커피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학교에서 가까운 황령산 전망대에 교수님과 함께 올라가 우리 부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면서 단체사진도 찍고 학우들과 우애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저의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가사생활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의 수업 계획과 목표가 생겼고 그것을 해냄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낍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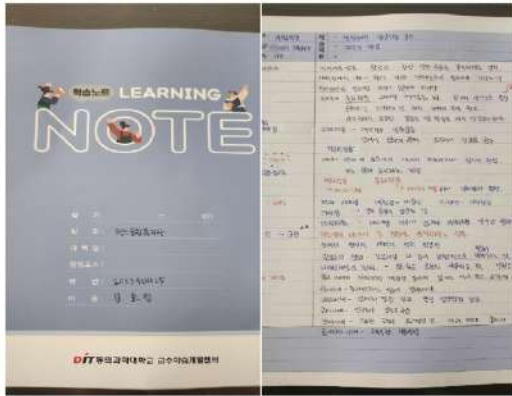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외근로 활동모습

수 있었습니다. 함께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따를 땀 잊고 지냈던 저의 오랜 꿈인 선생님이 된 기분에 하루하루를 즐겁고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제도 중 아동복지의 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일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 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론을 접목하여 더욱 풍부해진 독서 토론 진행과 독서후기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동복지론 수업에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해 배우고 함께 고민과 토론해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엔 교내 식당에서 맛있는 학식을 먹고, 봄의 햇빛이 활짝 핀 캠퍼스를 누비며

저의 생활에서 또 다른 큰 변화는 근로장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연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기초 학습지도와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처음 가보고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생각보다 많음에 놀랐지만 잘 짜인 프로그램과 돌봄, 식사제공 등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잘 운영하고 계셔서 밝은 모습의 아이들을 만날

에필로그



학교노트와 필기 모습

수업 시간에 노화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으로 기능이 쇠퇴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평생 교육과 평생직업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시작의 첫발을 동의과학대학교 헬스융합 복지과에서 내디뎠고 벌써 저의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졸업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질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복지단체에서의 경험도 해보고 싶고 그로 인해 나의 고향 나의 지역인 부산에서 꼭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발전된 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Dream as if you will live forever. Live as if you will die today.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 말처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학우들과 모든 성인학습자들을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만학의 길

LiFE 사업 학습수기



학과전체 MT

1976년 2월 고등교육을 종료하고 취업을 하여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굴곡진 인생길을 걸어오던 중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지인의 소개로 접하게 된 성인학습자 대학과정을 알게 되었다.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라 생기부만 준비해서 동의과학대학 사회복지요양 서비스학과 전임교수와의 상담으로 입학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합격

통지를 기다리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 틀 안에서 교육을 받은 지 4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대학이라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희미해진 고등교육 과정의 학습 지식들, 방금 접한 지식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노화된 내 기억력과 생전 처음 접해보는 대학과정의 무지한 이론들, 그동안 생업으로만 맺어온 인간관계에서 배움의 길에서 새롭게 형성해야 될 대학 학우들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할지... 걱정으로 지내오던 어느 날 상담받은 전임교수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 합격했다는 통보에 온갖 걱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의 연속이 시작되었다.

평소에 얼마나 갈망하던 대학이었던가 주위에 대학 졸업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이제 나도 대학을 가게 되는구나 하는 부푼 꿈을 안고 입학식만 기다리고 있었다.



학우들과 수업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리엔테이션~~ 처음 접하는 단어~ OT로 대체되는 입학식을 마치고 각 과별 오리엔테이션에서 전임교수 과목별 교수님들과의 상견례 시간 처음 뵙는 교수님들이지만 너무 편안하고 정감이 넘치는 교수님들이었다. 강의시간표와 계획서를 받고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변한다.

그 이유는 시간표에 여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교선 전선 전필 이제 무슨 뜻일까 다른 학우들은 알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살짝 휴대폰을 꺼내어 네이버에게 물어봤다. 참 어이가 없다. 내가 한심한 건지 모르는 게 정상인지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다 입학식을 이렇게 마치고 한 주 후에 학기 시작이라는 안내를 받고 나니 이제 다음 주가 또 기다려진다.

기다리던 1학년 1학기 강의 시작 날 각 과목별 오리엔테이션 시간~ 앞으로 수강해야 될 과목별 강의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교재 준비 등으로 첫날은 마무리 되었다 이제 교재를 준비해본다. 왜 대학 교과서는 이렇게 무거울까 알고 보니 교과서 자체가 크고 책장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새 교과서라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펼쳐보니 ~~적 ~~론 무슨 어휘가 이럴까 처음부터 어려워지는 것 같아 대학 졸업한 아들에게 물어보니 대학 교과서는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편찬한단다. 아버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냥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교과학습 과정은 출발되었다.

강의는 시작되었지만 이미 학령기를 넘기고 생활방식들도 다 다르며 학우들 연령도 40대부터 60대 후반기라 모두 서먹서먹하고 뽀죌하고 너무나 어색들 하다. 어느 날 강의 시작 전 교수님이 빨리 친해지고 가까워지려면 과 단합대회를 빨리 가지라고 팁을 주셔서 3주 차에 수강 종료 후 단합대회를 가졌다. 맛난 식사와 반주 한 잔으로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다. 역시 교수님의 팁은 신의 한 수였다.

이젠 학우들과의 대면이 자연스러워지고 제법 농담도 하는 관계로 발전해간다. 교과학습 7주 차에 M/T라는 행사가 잡혔다.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하는 학교 행사라는데 많이 기다려진다.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 보니 지도 교수님과 많은 학우들이 반갑게 맞아준다. 경치 좋고 야외 수업 하기 좋은 장소에서 교수님과의 대화시간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다. 군사부 일체라는 엄중한 도덕교육을 받은 세대라 가까이 다가가기엔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 동생 같고 조카 같은 거리감으로 좁혀진다. 이젠 주말이 기다려지고 수강 후 귀가하면 복습과 주중엔 연습으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가족들이 신기해한다. 대학 입학 전에는 TV 시청으로 나날을 보내던 모습이 입학 이후 열공하는 모습에 감탄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끝으로 많이 늦은 나이에 배움의 기회를 준 국가와 대학 당국에 감사하며 짧은 대학 생활에 많이 변한 나의 일상과 대학 입학 후 8주 차 신입생의 그간 대학 생활에서 느낀 소감을 나름대로 솔직하게 표현 해본다.





만학도의 열정으로

LiFE 사업 학습수기



진학목적



사회봉사활동(영암군 가로수 전정작업)

직장 생활을 조선업에서 하다 보니 특성상(공기단축 주야 작업) 및 조기 출근(05시 30분부터)으로 하루가 시작해 22시에 퇴근하며 정해진 휴일 없이 대한민국 조선업의 호황에 미력하게나마 기여하며 34년 만에 퇴직하였습니다.

인생2막을 위해 새 일을 찾아 50대 후반에 평생 해 온 조선업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두려움 속에서 쉽게 구직을 못하다가 한 회사에 세 번의 응시 끝에 어렵게 직장을 구했습니다. 보수는 작지만 문화재 관리라는 우리 조상의 일을 후손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보람되며, 국가에 봉사하는 일이며, 상대적으로 규칙 된 근무시간이어서, 이전 직장에서 항상 일에 쫓기며 시간이 없어 전부터 목말라했던 자아실현 위한 배움과 구직 시 변변한 자격증이 없어 힘들었던 현실적 경험으로, 문화재 관리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한식미장과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이론적 부족함을 절절히 느껴 좀 더 전문적인 공부와 대인관계를 위해 목포과학대 야간 건설융합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만학도이지만 이왕하는 학업 확실히 하고, 뜻깊은 학교생활을 하여 주변 친구나 동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이 63세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 과정 실습

주경야독 힘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2021년 4월 문화재청 식물보호 기능공, 2021년 5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방수 기능사, 2021년 6월 건축도장기능사, 2021년 12월에 조정기능사에 합격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는 굴삭기운전기능사, 그리고 5월에는 조정산업기사 1차 필기를 한차례 고배 끝에 합격하였으나, 실기 1차 실패 후 2차 시험에 도전하여 드디어 2022년 12월 30일에 합격하였습니다.

40여 년 만에 하는 공부, 뼈까지도 인문계열인 저는,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60대 기억력, 생소한 건설·토목·조정·용어와 수식을 직장 생활과 병행하며, 오전 05시에 일어나 출근 전 복습을 하였고, 직장 퇴근 후 학교가 끝나면 22시에 집에 가서 밀린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특강해 주시는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실기 연습을 하며 '왜 이리 부족한 게 많은 나 자신인지..' 자학하며 '그렇기에 젊은 학우보다 1.5배 또는 2배 노력하자'라고 다짐하며, 될 때까지 방학, 주말 오후 등 외롭지만 학교 실습실에 혼자 앉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함께 한 늦깎이 학우들과 온 힘을 다해 땀 흘리고 서로 격려해가며, 한 단계 한 단계를 통과해 가면서 '역시 노력하면 된다'는 걸 실감 하며 큰 보람을 얻었습니다.



방수기능사 과정 실습

백세 철학자 김형석 박사님 가르침처럼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인학생에게 기회와 만학의 희열을 느끼게 해준 교육부의 LiFE 사업과 모교에,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친절히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옛그제 입학했는데 벌써 졸업이 다가오며, 진한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지게차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를 아직 못한 것, 도배기능사나 측량기능사 시험을,
조경산업기사 시험 때문에 좀 더 해보지 못한 것 등등...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늦깎이 학교생활을 지켜봐 중 주위의 직장동료나 아내, 자식들...

공부를 시작하면서 스터디를 공유한 학우들과 함께 한 시간은 잊을 수 없는 학교생활의 추억이며
또 하나의 기대 이상의 수확인 것 같습니다.



굴착기기능사 과정 실습



조경기능사 과정 실습



행복하고 보람 있는 대학 생활

LiFE 사업 학습수기



진학목적



측량 및 지형공간 산업기사 과정
실습용 측량기

건설회사에서 공무일을 보면서 더 전문적이고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업무는 시간을 두고 익히면서 배울 수 있었지만 다양한 공사를 무리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의 학위와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추천을 받던 차에 인터넷을 통한 목포과학대의 건설융합과 신입생 모집에 대한 홍보를 접하여 입학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학하였을 때는 근무하는 직종에 필요한 기술인 수첩 역량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같은 과 학생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적응하는 데에 수월했지만 다양한 나이의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거라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전공 서적들이 낯설면서도 업무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

2021년도 대학 신입생 시절은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습니다. 회사업무와 함께 학업을 병행 하였던 터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기 중에 치러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학생들에게는 결코 피할 수 없는, 때론 배웠던 부분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일종의 '자명종' 같다는 생각이 들었



방수기능사 과정 실습

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차! 하는 생각을 한 번씩 일깨워주기도 했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야간대학이라 끝날 때면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기도 했었지만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의 참석률도 좋은데다 무엇보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배울 수 있어서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강의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잘 짜여 있었습니다. 기술인수첩 토목부문 인정에 필요한 방수기능사와 건축도장기능사를 시작으로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조경기능사, 측량기능사, 도배기능사 등 다양하게 도전하여 취득이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기능사를 선택하여 2년 동안 열심히 도전하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학년에는 방수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주력했습니다. 체력이 필요한 기능사였고 기술법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터라 두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꼭 필요한 자격증이기에 계속 도전하였고 마지막에는 좋은 점수와 함께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이라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도전이었습니다.

2학년 초에는 건축도장기능사와 지게차운전기능사에 차례로 합격하였고 그 후로 조경기능사와 측량기능사에도 계속 도전하여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지고 싶었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에 합격한 후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보람을 느꼈습니다. 산업기사는 종사하고자 하는 업종에 연관되어 있기에 꼭 필요한 자격증으로 애착이 많이 가는 시험이었습니다. 적성에도 잘 맞고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준비하는 과정에도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합격 발표 후에는 저의 선택과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 과정 실습

교수님들의 열정과 성실하신 가르침으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과학대에 입학하기 전에는 혼자 준비하기 힘든 자격증들이었지만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게 지속적인 격려와 실습, 그리고 꼼꼼한 가이드를 통해서 대부분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교 안에 실습실이 완비되어 있어서 원하는 분야의 기능사 준비를 꼼꼼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께서도 필요한 재료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셨습니다.

제가 느꼈던 목포과학대의 교육프로그램의 장점들입니다.

- | | |
|--------------------------|-------------------------|
| 1) 경력의 업그레이드화 | 2)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된 현실적인 교육 |
| 3) 다양한 기능사 취득에 도움이 되는 강의 | 4) 봉사활동과 실습을 통한 학습의욕 고취 |
| 5) 교육을 통한 자율적인 경력관리 확장 | |

위와 같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하여 체계화된 교육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넓은 홍보로 더 많은 분들이 목포과학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년 연장이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후배들이 두려움 없이, 제2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굴착기기능사 과정 실습



지게차기능사 과정 실습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

LiFE 사업 학습수기



종이접기지도사 수강 완성품 들고

60이 넘어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사회복지 현장에 입문하고, 관련 분야 공부를 시작하면서 청소년의 문화와 복지·프로그램 개발·지도 방법·문제와 대책 등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학문의 신세계를 만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행했던 너희들 청소년 시절이 떠올라 늦었지만 이렇게 글로 사죄의 뜻을 전한다.

너희들이 중고생 때 친구를 만나겠다면 “친구는 나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 그 시간에 공부나 하라”라는 편잔에 너희들은 제대로 토 한번 달지 못했다. 또래들과 어울려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친밀감을 쌓으려던 너희들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컸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또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 들지도 않았던 나의 무지가 원인이었다.

PC 한 대 있었으면 하고 어렵게 입을 떼 너희에게 “게임하려고 그러지?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에 보자”라며 매정하게 자르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무리해서라도 인터넷 설비 정도는 갖추 주었어야 할 일이었다. 청소년들의 사이버상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뒤늦게 깨달았다. 어찌면 집에 변변한 PC 한 대조차 없던 환경이 너희들의 IT 성장 잠재력을 막아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학 때 청소년 캠프는 고사하고 영화관 가서 팝콘 하나 같이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학교와 가정을 벗어나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지 못했다.

대학 새내기 때 음악 동아리 활동을 하겠다는 둘째에게 “넌 소질이 없어 안 될 거야” 하며 단번에 기를 꺾어 놓은 것도 잘못이었다. 트로트와 포크 송을 좀 안다고 장르가 다른 록이나 힙합을 가볍게 폄하해버린 것은 청소년 문화의 다양성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재기에 성공하면 원하는 것 다 사주고 다 들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에 너희는 눈치만 보며 황금 같은 청소년기를 즐길 겨를도 없이 그저 흘려보내야 했다. 야속한 세월이었을 것이다.

마침내 대학을 졸업한 첫째가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사업체 대표를 맡아 실패를 겪어지며 너희들 청소년기는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도 너희는 절망을 곳곳이 이겨내고 어느덧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하고 있다. 민망하지만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 꼭 전한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토대가 되는 청소년기의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격려했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회한이 되살아난다. 생활이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너무 옹색하다. 당연히 막노동이라도 해서 너희들 청소년기를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만들어 주어야 했었다.

나는 앞으로 너희가 결혼해 아이가 생기면 함께 잘 놀아주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고자 한다. 믿기지 않겠지만 작년 가을, 학교에서 동화 구연과 종이접기 특강을 이수해 각각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성 수강생들 틈바구니에서 나이 많은 청일점으로 시선을 받으면서도, 과거 베풀지 못했던 사랑을 2세에게라도 꼭 전해주자는 일념에 끝까지 완주했다. 청소년기에 나로 인해 생겼을 너희들 트라우마도 함께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동영상강의 수강 중 잠시 휴식 중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분임조활동



학교 서정관 앞에서



나의 사랑 나의 LiFE

LiFE 사업 학습수기



영광의 졸업식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경로우대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나는 65세 할머니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대받고 싶지 않은 젊은 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문제는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연금 재원이 고갈되어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돈이 덜 들어가는 노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그것은 교육입니다.

각종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이 직접 신청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찾아 수강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접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집 밖으로 나올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운동하듯이 자전거로 40분을 달려 송도 5동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간제로 업무 보조하는 시니어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퇴근하면 프로그램

수강으로 댄스나 요가, 어학 등 취미 생활을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문화 여가,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은 음악회, 나눔장터 등을 열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기초단체입니다.



근무 중

성인 학습센터에서 늦은 나이에 대학 공부하면서 사무 행정(ITQ)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서작성이나 서류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주민들의 민원 사항도 친절하게 해결하는 자신감 넘치는 시니어 인력입니다.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부러워하는 스마트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하게 되는 비결은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덕분입니다.



학업공동체동아리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LiFE(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포함)를 사랑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한껏 올려주고 나의 배움에 대한 욕구를 폭발하듯 꺼내준 서정대학교 성인 학습센터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가난과 무지함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귀인을 만나 결혼하고 삼 남매를 키우며 살아왔으나 IMF라는 시대적 시련을 겪으며 산업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캡스톤디자인발표회



상 받던 날

16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몇 년 전 정년 퇴임을 하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것임을 매일매일 느끼며 집으로 오는 나에게 “엄마 학교에서 100점 받은 아이처럼 눈이 반짝여요.”라고 딸이 말해 줍니다.

좀 더 많은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은 나의 열망을 보신 교수님께서 서정대학교 LiFE 사업을 소개해 주셨고 어쩌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배움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강한 자신감과 열정으로 만학도가 되었습니다. 삼 남매는 키우는 동안 힘들었지만, 어느새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나의 선택을 늘 지지하며 건강한 인생을 함께해 주는 남편의 지원을 맘껏 받으며 나의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모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반에서는 총무를 하며 교수님과 학우들과 멋진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사제동행활동

졸업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건강가정사, 노인심리상담사, 미술심리 상담사 등등 자격증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후배가 나의 대학 생활을 보고 반신반의하며 서정대학교에 입학하였고 후배 또한 멋진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 무척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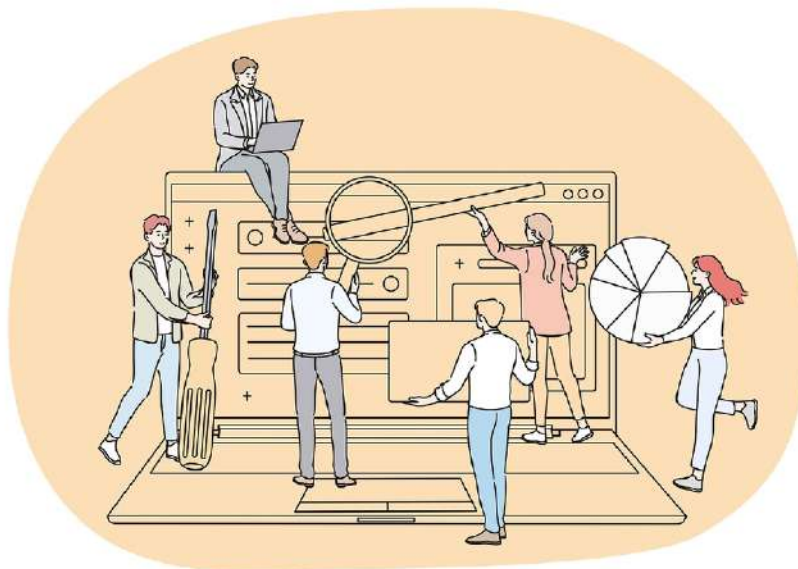
배움의 기회를 놓친 모든 중년 또는 노인들에게 자랑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배움은 우리의 노년을 아름답게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오래전부터 새마을 부녀회에서 반찬과 김치를 만들어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막연하게 해오던 봉사활동이 선별적 복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모든 주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배움이란 이렇게 소중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현장실습이라는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게 하는 나의 바램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두루 경험하고 복지 전문가가 되어 주변의 많은 노인에게 재능기부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동행하고 싶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나의 도전정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젊을 때 하는 공부보다 더욱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만학도들은 다양한 사회 변화를 체험하였고 넘치는 의욕과 세련된 경험을 되살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공부하는 이름다운 노년들을 위해 ‘성인학습센터체제’를 가장 가깝고 더 많은 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염원해 보며 이 글을 마감합니다.



내 삶의 전환점

LiFE 사업 학습수기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 어찌 보면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운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잠재되어 있었던 탓에 대학 갈까 말까가 아닌 바로 가겠다 였다.

그렇게 성운대학교 IT융합복지학과에 합격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학교로 가는 길 연초록색의 새싹이 빠르게 산과 들에 물들이고 이른 아침공기 마시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은 상쾌함으로 가득하다. 우리 학과 학생들과의 첫 만남, 어색한 표정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과 교수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대학 생활은 시작되었다.

학기 초에는 열심히 하려는 마음과 달리 사이버 강의 수강과 중간고사 리포트 작성, 학기말 시험 등 학교 행사를 치르면서 일과 병행하는 우리는 공부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제 Hi-Wellness 체험 페스타 참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Clean City 운동



제4회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전국대회 참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리하다가 스터디를 결성하였다. 의기 투합한 우리와 엘리트(양들의 침묵) 5명과 카톡방에서 소통하고 서로 도우면서 공부하기로 하였다. 결과는 너무 좋았다~ 시험 걱정은 끝이다~ㅋㅋ

성운대학교 스마트평생교육학부에서는 LiFE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나는

운 좋게도 전년도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LiFE 사업에 거의 모두를 참여할 수 있었다. 경북·영덕 국제 Hi-Wellnes 체험 페스타 2022 박람회, 영천시 평생학습박람회, 산사랑 물사랑 자연보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Clean City 운동, 2022년 제24회 성운대학교 Re-Turn To 가을축제, 제4회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전국대회, 하이브리드 플립드러닝, CPR 제세동기교육, SD-Talk 교육 등의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색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은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특히 제4회 세계유산 스토리텔링 전국대회 경상북도교육문화건강진흥원 주최/주관 경주시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후원, 지난 2022년 11월 26일 경주화랑마을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로 나누어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을 수여하였고, 대학부에 출전한 성운대학교 IT융합복지 전공 김지용, 어영아, 이희경, 서은진 팀을 이루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탐방 신라불교 문화의 보고, 경주남산으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 만들어 출품한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는 지역사회 김장봉사와 우리동네(나눠 YOU프로젝트)을 통해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우리동네 나눠 YOU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스마트평생교육 학부(B) IT융합복지전공 학생7명과 학부장님, 전임교수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영천에 있는 건화종합 복지기관을 찾았다. 건화종합복지관은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셨고, 앞으로는 복지 분야를 계속 넓혀 가신다고 하셨다. 어르신들의 미술색칠공부를 도와드리며, 말동무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밝은 표정으로 저희들을 맞아 주셨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우리 한 학우님은



우리동네 나눠YOU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들께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에 화장실 가서 많이 우셨다고...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우리는 봉사활동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였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보람 있는 하루였다. 어르신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성인학습자 특성상 학생들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새해맞이 학과 단합대회겸 경주문화 탐방을 실시하였다. 금강산도 식후경~~ 경주최부자집 근처 한식집에서 맛있는 점식식사를 하고 월정교와 첨성대 그리고 교촌마을(최부자집)을 둘러보았다. 300년이나 부를 유지했던 최부자집~~ 부자 기운 팍팍 우리 IT융합복지 학우들에게로 가리라^^ 오랜만에 만난 학우들과 추운 날씨도 이랑곳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코스 아늑한 카페에 모여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와 대표님 안건 등을 토의하였고, 1학년 마치고 졸업여행을 간다고~~ 졸업여행 go go~~ 우리들의 대학 졸업 여행 수기는 다음 기회에~~



경주문화탐방 참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과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자신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한다.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나? 사람들 사이에서 융화 하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 주려고 하고, 솔선수범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려고하고, 이렇게 사회성을 배워가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이 시작한 공부 평생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며 오늘도 즐겁게 스마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영천시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찾아가는 학습법 프로그램(Talk to You)





LiFE 사업으로 성장·변화된 나의 모습

LiFE 사업 학습수기



학우돕기 사랑의 바자회 활동

성운대학교 LiFE 사업 주관학부인 스마트평생교육학부 복지경영전공에서의 인연은 내 생애에 발전적 전환점을 만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내성적이면서 주도적인 성격이 되지 못했던 것이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성격으로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대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아울러 소극적인 행동과 마음으로 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자녀들에게까지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며 늦은 나이지만 아주 활기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먼저 경험하는 '마중물학교'를 시작으로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MT', '자아발견 특강', '2050세대공감 상담 프로그램', '역지사지 커뮤니케이션 강화교육', '산업체 CEO 릴레이 특강' 등을 통하여 저 자신을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아발견을 할 수 있는 각종 검사 및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산업체 인사들의 연이은 특강으로 나날이 제가 발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다르게 저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졸업 후 받을 사회복지사를 뒷받침할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상담사', '인지행동개선 전문가', '트라우마 전문지도사', '웰다잉상담사', '마을공동체활동가', 'SNS마케팅전문가' 등 비교과 프로그램과 비학위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가 과정의 학습활동은 정말 저 자신이 빛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한 성취감으로써 LiFE 사업의 위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졸업이 목적이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목적이었지만 학교생활을 통하여 교수님과 학우님들의 열성적인 학습상담과 멘토링 등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으며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한 성취감으로

학교생활을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SNS마케팅전문가' 과정을 열심히 수강하여 생소하고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SNS 판매와 온라인 판매업을 사업자로 등록하여 학업 중에도 꾸준히 새로운 SNS 활동을 통해 온라인 사업도 병행하여 사업도 점점 발전되고 있어 정말 꿈같은 매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운대학교 LiFE 사업의 성인학습자로 적극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의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저의 숨겨진 잠재력을 일깨워준 덕분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LiFE 사업 프로그램 - 액션러닝

특히 수업 내용이나 교육 방식이 우리 성인학습자들에게 맞춤형이어서 접근하기가 쉽고 졸업 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기 용이한 부분입니다. 다른 학우님들도 꽤 만족한 학교생활이라고 하니 이 또한 늦은 나이의 호사가 아닌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학우님 돕기 사랑의 바자회와 근교 장애우가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실시한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과 행복도 함께 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교수님들, 학우님들과 함께 하면서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향한 진심과 진정성을 교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참 좋았습니다.



장애우 봉사 활동

향후 학위 취득 후에는 현장실습 등을 통해 경력을 쌓으면서 교수님과 학우님들 과도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이직이나 전직에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경력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이력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더 취득하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나은



토함산·불국사 거리 정화 봉사활동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저의 삶에 유익한 것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전공 심화반에 편입하여 4년제 대학과 더불어 대학원 진학을 교수님의 조언을 충분히 받고 결정하여 앞으로 남은 후반기 인생에서 저의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LiFE 관련 학부에 온 것만으로도 많은 감동을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LiFE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 성인학습자들을 위한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LiFE 사업 대학에 와서 자긍심을 키우고 자신의 숨은 역량을 되찾으면서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배운 것을 남에게 주는 그러한 사회복지사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개인 사업을 하는 만큼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저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성운대학교의 발전과 LiFE 사업의 유용성이 많은 성과를 남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도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산사랑물사랑 환경정화운동



Bravo, My LiFE!

LiFE 사업 학습수기



남들과 비슷하게 때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육아를 하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2022년 인천재능대학교 복지케어학과 입학은 저의 새로운 LiFE를 꿈꾸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통해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회들을 통해 평소 제가 알고 있던 것 외에도 우리 삶의 곳곳에 복지 영역 및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석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그러던 중 거주하는 지역의 지인분과 대화하다가 최근 제가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시작했고 그것과 관련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하고 계시다며 저와 함께 활동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 자세히 몰랐었기에 지인분께 여쭙보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보호대상자 및

가구 등에 대한 지원,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안주신 부분이 제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고,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2023년 2월 21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3월 14일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2동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석남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방위협의회 위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위해 소속 회원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회의도 참여하고, 제가 평소 생각 해왔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의견들도 드리며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첫 안건이었던 지역 독거노인 생일파티에서는 제가 케이크를 지원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려 독거노인분들께 케이크 지원을 드렸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과 독거노인분들의 막에 직접 방문하여 생일파티를 해드렸습니다. 독거노인 생일파티는 제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첫 시작이었기에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은 가슴속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석남2동 방위협의회 위원 위촉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생일파티를 해주어 너무 고맙다며 몇 번이나 손을 잡아주시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이런 몽클한 감동을 오래도록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복지 관련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도 노인분들의 우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시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과 별도로 생일파티 안전을 오래도록 유지하시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독거노인 생일파티의 경우 《「미디어 투데이」 인천 서구 석남 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독거노인 가정 방문해 생일상》이라는 주제로 신문기사에 사진과 내용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신문에 실릴 일이 생겼단 것도 제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니다.



재능대학교 : 학우들과 학교생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독거노인 생일파티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방위협의회는 매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후원금 지원, 양말 세트 후원, 지역 노인 대상 무료 장수사진 촬영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무료 장수사진 촬영 같은 경우는 촬영 후 다과를 함께 먹으며 노인분들의 말벗도 되어드리고 추억을 남겨드리는 활동도 하기에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월 초 열렸던 석남 2동 거북골 플리마켓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외에도 민관 합동 대청소(우리 마을 행복마을), 관내 어르신 1,500여 명에게 사랑 나눔 자장면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방위협의회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LiFE 사업을 통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역사회를 돕는 일에 제가 직접 몸과 마음으로 배우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자.'라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방위협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지역의 좋은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LiFE를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LiFE 사업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Bravo, My LiFE!





입학 후 변화되고 있는 나의 삶

LiFE 사업 학습수기



인간과 AI수업

큰 기대 없이 인천재능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근데 입학 후 첫날부터 감동을 받으며 대학 생활이 시작된 사건이 있었다.

첫 시간이 9시 교양과목인 기타 수업 405호. 아무리 오르내려도 405호는 찾을 수가 없었다. 첫 수업부터 지각할 수 없겠다 싶어서 젊은 친구에게 405호가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앞서 걸어가서는 본관에는 405호가 없고요,

교육관으로 가셔야 해요. 하면서 교육관이 보이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것에 고마움과 큰 감동을 받았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기주의라는 편견이 있어서였을까? 우리 대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착하다니. 그 뒤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팍팍 생기기 시작했다. 식당이나 셔틀버스,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젊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겼다. 1학년이면 저도 1학년 복지케어과입니다. 반갑습니다~ 2학년이면 선배님이시네요. 무슨 과에서 공부하시나요? 하며 금방 친밀해지는 것을 매번 경험했다.

교양과목인 기타 수업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우리들의 의견과 삶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멋진 마인드를 가지신 교수님으로 인하여 9시까지 와야 하는 버거움에도 설렘을 갖고 학교를 오게 된다.



학과 설명회

사회복지학개론 최원석 교수님, 특특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을 성숙한 대학생답게 성장하길 기대하시며 리드해 주시는 교수님의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게 된다.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멋있으신 이명숙 교수님, 늦은 나이에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들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면서 매번 수업 시간마다 그날 수업한 내용을 듣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비슷하게 경험한 것이 있는지 발표를 시키신다.

발표 시 진심으로 경청을 해주시면서 발표한 분의 장점을 세워주시는 멋진 마인드를 가지신 교수님이시다. 닳고 싶은 멋진 교수님이시다.

인간과 AI 이상철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 젊은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들었다면 교수님의 엄청난 실력을 잘 소화 시켰을 텐데 컴퓨터에 완전 왕초보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라 힘드실 텐데 당신의 실력을 뽐내시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 오히려 더 쉽게 가르쳐 주시지 못 해서 죄송해 하신다. 이상철 교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영유아 발달 정경순 교수님의 해박하심과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가 무지해서 실수했었던 일들이 생각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명 강의를 통하여 영유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한 생명의 신비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2023 재능 에듀포럼 특강



2023 재능 에듀포럼 특강

되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지해서 실수했었던 일들이 많았지만 미래의 손주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여 열심히 배우고 있다. 가족복지 김표민 교수님, 김표민 교수님이 우리 A반 담당 교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가족복지 수업을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제 치매가 시작되고 있는 친정엄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만날 클라이언트를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케어가 먼저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친정엄마에게 안부전화를 드리게 된 좋은 습관이 생겼다. 배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김표민 교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었다.



학우님들과 나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A반 학우님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열떨결에 반 대표가 되었다. 반 대표의 경험이 없어서 어리바리한 나를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셔서 휴강이 있는 날 A반 학우님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휴강이 싫어지기도 한다. 화요일 특강을 우연히 청강하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광고를 보고 우연히 알게 된 강의이다. 그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 인천재능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이다. 아나운서인 한석준 코치님과 명강사를 초청 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것을 보았다. 학생들을 배려하는 학교의 투자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고 큰 기대 없이 인천재능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두 달이 지나가는 지금은 인천재능대학교가 소소하지만 나의 삶이 조금씩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 오는 것이 설레고 기대가 되어 매일매일 오고 싶은 곳이 되었다. 요 근래 친구들과 강화에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다혜야~ 요즘 더 예뻐진 것 같다. 활기찬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선한 영향력이 된다. 나도 내년에 인천재능대학교에 가고 싶으니 정보 좀 부탁해.'라는 말에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멋진 선배가 될 테니 내년에 내 후배 3기로 들어 오라고 큰소리쳐 놓았다.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발 행 일 2023년 6월

발 행 인 강 대 중

발 행 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층 대학평생교육실

문 의 02-3780-9700

디자인·인쇄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LiFE

Lifelong education at universitie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2022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성인학습자 우수사례 수기집